언론의 폭력성과 개인의 명예*

-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중심으로 -

김 희 열**

< 차 례 >

0. 들어가는 말
1. 테러리스트 옹호라는 오해의 배경
2. 언론의 특성과 언어 폭력
3. 짜이퉁과 존탁스짜이퉁의 폭력성과 그 상승작용
3. 1. 짜이퉁과 존탁스짜이퉁에 의해 조작된 현실
3. 2. 조작 현실을 가능케 한 계기들
3. 3. 실제 현실
3. 4. 카타리나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 가해진 언어 폭력성
4. 짜이퉁의 정치적 의도와 개인의 명예훼손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들어가는 말

하인리히 뵐(1917-1985)은 문학의 과제란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추구"[1]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닌 삶의 가능성"[2]을 모색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뵐은 개인으로서 글을 쓴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시대와 동시대인과 묶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대와 동시대인에게 묶여 있

* 이 논문은 1999. 9 같은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됨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1) "die Suche nach einer bewohnbaren Sprache in einem bewohnbaren Land", Heinrich Böll, *Frankfurter Vorlesungen*, München 1968, 45쪽

2) "die Möglichkeiten menschwürdigen Lebens in einer zunehmend inhumanen Gesellschaft", Jochen Vogt, *Der Erinnerungsarbeiter. Zur Charakteristik des Publizisten Böll*, in: Hg. Heinz Ludwig Arnold, Text + Kritik, Heft 33, München 1982, 123쪽

기는 하지만 예속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3]. 뵐에게 있어서 언어란 자유의 마지막 보루이며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은 그런 언어속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4] 인간의 자유, 존엄성, 품위가 훼손되고 억압당하는 것은 바로 작가로서의 뵐에게 있어서 언어가 위협받는 곳이기도 했다. "소위 작가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작가는 자유의 마지막 자리 가운데 하나이다. 자유가 위협받는 곳은 언어가 위협받는 곳이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5] 뵐은 작가로서 현실문제에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았으며 뵐의 창작 과정은 늘 동시대의 사건들, 그 전개 과정과 구조에서 문학의 출발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의 문학은 "역사적 내지는 시대사적 사건과 밀접한 연관"[6]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뵐은 작가로서의 사명과 책임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알리고 소외받거나 억압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비겁하게 회피하고, 교회 성직자들은 여론에 영리하게 대처하니 사람들은 작가로부터 영리하지 않은 말, 진실된 말을 기대"[7]하기 때문이다. 뵐은 인간의 억압과 인권 유린의 상황에 대해서 국내외를 넘어서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가들이란 "천성적으로 참견자이며, 소련, 체코, 스페인, 인도네시아, 브라질, 포르투칼의 판결과 문화 정책에 참견하고 (...) 중국, 쿠바와 멕시코에도 참견"[8]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68년 비상사태법, 1971/72년 바더-마

3) vgl. *Frankfurter Vorlesungen*, 7쪽과 9쪽

4) vgl. Böll sieht die Verpflichtung, daß "die Würde des Menschen im Wort bewacht und verteidigt." Heinrich Böll, *Die Sprache als Hort der Freiheit*, in: Hg. Werner Lenging, *Der Schriftsteller Heinrich Böll. Ein biographisch-bibliographischer Abriß*, München 1972, 20쪽

5) Heinrich Böll in Horst Bienek, *Werkstattgespräche mit Schriftstellern*, München 1962, 181쪽

6) "an den geschichtlichen, bzw. zeitgeschichtlichen Prozeß gebunden." vgl. Bernd Balzer, *Anarchie und Zärtlichkeit*, in: Hg. Bernd Balzer, *Heinrich Böll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1947-1952, Bd. 1, Köln 1989, 13쪽

7) "Die Politiker drücken sich, Kirchenmänner sind klug in der Öffentlichkeit - das unkluge, das wahre Wort erwartet man von Autoren", 재인용, Bernd Balzer,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Frankfurt/M. 1990, 12쪽

8) 재인용, ebd., 24쪽. 1976년 한국의 김지하 시인이 옥중에 있을 때 사면 청원을 낸 것도 이러한 뵐의 작가정신을 반영한 사례에 속한다. vgl. Hg. Werner Bellmann, *Das Werk Heinrich Bölls*, Opladen 1995, 186쪽

인호프 그룹에 대한 박해가 뵐로 하여금 국내 문제에 참견하게 한 직접적 계기였다. 뵐은 어떤 다른 작가보다도 동시대의 사회 역사 문제를 자신의 작품과 저널리즘 기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1. 테러리스트 옹호라는 오해의 배경

1960년대 독일에서는 "학생운동"과 "비상사태법" 제정의 사회적 논란에서 일반 국민들은 테러리즘에 노이로제 반응이 있었다. 특히 재야세력 가운데 "바더-마인호프" 그룹은 극좌익 노선으로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반정부 정치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좌절하자 테러리즘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71년 카이저스라우텐의 어느 은행에서 탈취 사건이 일어났고, 한 경찰관이 총에 맞아 살해되자, 악셀 슈프링어 재벌 언론 *빌트* 신문은 이 사건을 바더-마인호프 그룹이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1971년 12월 23일자 *빌트* 신문의 표제 기사는 "바더-마인호프 갱단이 계속 살인 행각을 벌이다"였다. 이것은 바더-바인호프 그룹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행을 이 그룹이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었다.[9] 이런 선판결을 표제 기사화하므로써 "매스미디어가 린치 법정을 요구,"[10] 또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야기된 테러리즘에 직면해서 악셀 슈프링어 재벌 소유 언론들은 일반인들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불안을 극대화시켜 집단 히스테리 반응으로 까지 몰아갔다.

우익계 언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단 히스테리 사회 현상을 목도하면서 하인리히 뵐은 새로운 인종 차별주의 또는 적나라한 파시즘을 보았다.[11] 그래서 1972년 1월 10일 *슈피겔*에 울리케 마인호프에

9) vgl. Klaus Jeziorkowski, *Heinrich Böll*, in: Hg. Gunter E. Grimm und Frank Rainer Max, *Deutsche Dichter*, Bd. 8, Stuttgart 1990, 217쪽

10) "die massenpublizistische Aufforderung zur Lynchjustiz", Klaus Jeziorkowski, a.a.O., 217쪽

11) "einen neuen Rassismus", G.Kothy/E.Schmidt/R.Schulz, *Heinrich Böll-Eine biographische Skizze*, in: Hg. Hanno Beth, Heinrich Böll. *Eine Einführung in das Gesamtwerk in Einzelinterpretation*, Königstein/Ts. 1980, 21쪽 그리고 "nackten Faschismus", vgl. Bernd Balzer, *Anarchie und Zärtlichkeit*, 141쪽. 뿐만 아니라 뵐

관한 기고문 "울리케는 사면을 원하는가 아니면 피고 보호를 원하는가?"를 싣는다. 뵐은 이 글에서 언론의 선동 사냥을 멈추고 울리케 마인호프에게 사면 또는 적어도 피고 보호를 해주자고 제안한다. 그녀가 혐의자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정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서 다루어야 하는데 언론에 의해서 유죄자로 판결내리는 선동 분위기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통해서 뵐은 언론에 의해서 야기된 선동 분위기를 철폐하고 비이성적 히스테리 분위기를 이완하고자 했으나 완전히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 기고문이 불에 기름을 붓은 격이 되어서 두 달 이상 계속해서 극단적 논쟁에 휘말렸다.[12]

뵐이 *슈피겔* 기고문을 쓴 이후 우익 언론으로부터 "뵐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바더-마인호프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들"[13]이라고 매도, 비방, 모욕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의 폭력 행위 동조자로까지 낙인찍혔다. 심지어 *빌트*는 그를 나치의 괴벨스와 같은 선동자와 비교하기까지 하였다.[14] 그리고 1972년 6월 1일 전국적으로 테러리스트 수색이 있었을 때 적군파 주동자들, 안드레아스 바더, 울리케 마인호프, 홀거 마인스, 얀-칼 라스페와 구드룬 엔슬린이 체포되었고[15], 같은 날 12명에서 15명 가량의 무장 경찰들이 하인리히 뵐의 아이펠 시골 별장도 포위하였다. 나중에 뵐이 알게 된 사유는 그의 *슈피겔* 기고문으로 인해서 뵐이 바더-마인호프 그룹과 접촉하고 있다고 경찰이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뵐은 직접 내무장관 겐셔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항의하거나 불평한 것이

은 *빌트* 신문의 표제기사를 언론의 범죄라고 까지 생각했다. vgl. „eine Überschrift in der *Bild*-Zeitung, die ich für kriminell halte„. Hg. Frank Grützbach, *Heinrich Böll: Freies Geleit für Ulrike Meinhof. Ein Artikel und seine Folgen*, Köln 1972, 96쪽

12) vgl. "; der Artikel goß eher Öl ins Feuer, als daß er entspannte." Bernd Balzer, *Anarchie und Zärtlichkeit*, 141쪽

13) "Die Bölls sind gefährlicher als Baader-Meinhof.", in: Hg. Frank Grützbach, a.a.O., 24쪽

14) Der Spiegel, Nr. 31/1974, 12쪽, vgl. Gerd Ludwig,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Eine literar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m Sensationsjournalismus*, Hollfeld/Ofr. 1986, 9쪽

15) vgl. Ulrich Harbeck, *Abenteuer Deutschland. Von der Teilung zur Einheit*, Bergisch Gladbach 1990, 181쪽

아니라 어떤 추측, 의심, 고발에 입각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가를 알고 싶다고 썼다. 6월 말 겐셔가 뵐에게 회신을 보냈다. 경찰은 그와 그의 가족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뵐의 집을 무력으로 덮쳐서 그들의 은닉처로 삼을 계획이라는 정보가 쾰른에서 입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라고 회신했다.[16] 그러나 그 이후에도 뵐과 그의 아들들은 여러 차례 가택 감시를 받았다.

하인리히 뵐은 그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들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비방 기사를 쓴 *빌트* 신문과 그 밖의 신문들을 읽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런 신문의 보도 대상자는 갑자기 며칠 만에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당사자가 어떤 위험한 삶에 처하게 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뵐은 "그런 이야기에 몰두했고,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욕에 빠져든 완전히 유명하지 않은 한 동시대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17] 바로 이 동시대인의 이야기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작품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부제 『폭력은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로 갈 수 있는가 Wie Gewalt entstehen und wohin sie führen kann』[18]는 1974년 7월에 출간되었다. 출간 당시 언론 및 대다수 문학 비평가들의 반응은 뵐이 이 작품을 통해서 바더-마인호프 그룹같은 테러리스트들의 폭력 행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주요 서평에서 보면 "은행 절도범과 폭탄테러범"[19], "테러리스트들"[20]이 작품의 등장 인물, "문학적 텍스트로

16) vgl. Christine Gabriele Hoffmann, *Heinrich Böll*, Hamburg 1977, 121-123쪽

17) "Diese Geschichte habe ich regelrecht studiert, Material gesammelt, und daraus schließlich die Geschichte einer völlig unbekannten und belanglosen Zeitgenossen gemacht, die plötzlich einer solchen Verleumdung ausgesetzt wird." Heinrich Böll/Christian Linder, *Drei Tage im März. Ein Gespräch*, Köln 1975, 69쪽

18) 뵐의 작품 제명은 Friedrich Schiller의 『잃어버린 명예로 인한 범죄자』, 부제 『진짜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하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세상이 그들을 "페스트 환자처럼 이단시 ausgeworfen wie einen Verpesteten"하고 자신들의 명예가 빼앗기는 순간부터 그 대응이 폭력적이 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vgl. *Der Verbrecher aus verlorener Ehre. Eine wahre Geschichte*, in: Sämtliche Werke, Bd.III, München 1975, 507/510쪽

19) "Bankräuber und Bombenleger", Rhein-Neckar-Zeitung, 1974. 8. 10, in: Bernd Balzer,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Frankfurt/M.

서 겉으로 가장 위대한 단순성을 가장한 졸렬한 작품"[21], "작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22], "문학과 선동의 경계를 넘어선 작품"[23], 또는 *빌트* 신문과 같은 "언론에 의해서 받은 모욕에 대한 한 작가의 복수"[24]라고 평했다. 베른트 발처는 그 당시에 나온 작품평을 모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내고 있다. "내가 모은 42편의 카타리나 블룸에 대한 작품평의 제목에서 복수, 앙갚음, 보복과 같은 낱말은 20개나 되었다."[25] 반면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는 아주 드물게 다음과 같이 긍정적 작품평을 했다.

> 그가 많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다. (...) 그러나 이것이 동시대인 우리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인식시켜 주는 작품을 뵐이 썼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는 독일 현재 문제의 정곡을 건드렸다.[26]

1972년 2월 9일 취리히 벨트보헤의 기자는 뵐이 겪고 있는 패배의 상황을 언젠가 문학 작품으로 보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1990, 6쪽

20) "Terroristen", Günter Zehm, *Heinrich der Grätige*, Die Welt, 1974. 8. 16, 15쪽, in: Bernd Balzer, a.a.O., 6쪽

21) "Als literarischer Text ist dies ein kleines Werk von scheinbar größter Einfachheit", Dieter Lattmann, *Böll und sein Buch des Anstoßes*, Vorwärts, 1974. 8. 15, in: Bernd Balzer, a.a.O., 59쪽

22) "Autor vollends entlarvt", Hans Habe, *Requiem auf Heinrich Böll*, Welt am Sonntag, 1974. 8. 18, 재인용 Klaus-Michael Bogdal, in: Hg. Heinz Ludwig Arnold: Heinrich Böll, Text + Kritik, Ht. 33, München 1982, 130쪽

23) "Die Grenze zwischen Literatur und Agitation überschritten", Jens Gundlach, *Die Grenze zwischen Literatur und Agitation überschritten*, in: Hannoversche Allgemeine Zeitung, 1974. 8. 3/4, 위 책, 131쪽

24) "Die Rache eines Schriftstellers für die selbst von solchen ZEITUNGEN erlittenene Unbill", Dinah Nelken, *Böll und die Blum*, Berliner Extradienst, 1974. 8. 23, in: Bernd Balzer, a.a.O., 62쪽

25) "Von den 42 mir zugänglichen Rezensionen zu Katharina Blum enthalten 20 die Worte 'Rache', 'Abrechnung' oder 'Vergeltung' schon in der Überschrift." Bernd Balzer,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6쪽

26) "Und es stimmt, daß er manches zu sehr vereinfacht und vergröbert hat. (...) Aber sie ändern nichts an der Tatsache, daß Heinrich Böll eine Erzählung geschrieben hat, die den Zeitgenossen bewußt macht, in welcher Welt sie leben. Er hat die deutsche Gegenwart (...) mitten ins Herz getroffen." Marcel Reich-Ranicki, *Der deutschen Gegenwart mitten ins Herz*,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74. 8. 24, in: Bernd Balzer, a.a.O., 63쪽

같이 답변했다: "아니오. 물론 그것이 변화된 형식으로 복수에 이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작가 또한 때때로 복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27] 하인리히 뵐의 "아니오"라는 대답을 당시 평론가, 언론, 정치권은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28] 그러나 뵐은 사람들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바더-마인호프와의 연관성으로 보는 것은 "실수이거나 오해 Irrtum oder Mißverständnis"[29] 라고 했으며 『카타리나 블룸』 재판 출간 때 작품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작품에는 단 한 명의 남자 테러리스트, 여자 테러리스트도 없다. 물론 테러리즘 혐의자는 있을 수 있으며, 내 소박한 의견으로는 정보 제공자는 혐의자와 유죄 판결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0]

물론 뵐은 대중과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았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몰두해 온 주제였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공개 비방. 저항할 수 없는 한 개인의 명예가 가십에 의해서 훼손되는 주제는 아주 오래된 신화적 주제이기도 하다."[31] 그런데 뵐은 『카타리나 블룸』이 아니라 1984년 다른 작품 『빌트, 본, 뵈니쉬』를 통해서 언론에 대한 작가로서의 문학적 보복을

---

27) "Nein. Allerdings könnte es sein, daß das eine oder andere in verwandelter Form zur *Rache* verwendet wird. Auch ein Schriftsteller möchte ich gelegentlich mal rächen." Hg. Frank Grützbach, *Heinrich Böll: Freies Geleit für Ulrike Meinhof. Ein Artikel und seine Folgen*, Köln 1972, 180쪽

28) 예를 들면 1974. 12. 12 CDU 전당대회에서 나중 연방 대통령(1979-1984)이 되었던 칼 카르스텐스 Carl Cars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모든 국민에게 테러리즘과 거리를 두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바로 몇 달 전에 카타리나 이름으로 폭력을 옹호하는 책을 써낸 작가 하인리히 뵐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vgl. Bernd Balzer, a.a.O., 6쪽

29) Bernd Balzer, a.a.O., 16쪽

30) Zehn Jahre später *Ein Nachwort von Heinrich Böll*, in: 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München 1997, 139쪽

31) "Das war für mich ein Thema, das mich sehr lange beschäftigt hat. Die Denunzierung von Menschen durch Medien. Das ist ein altes Thema übrigens, das ist ein uraltes Thema, im Grunde ein mythisches Theme, die Ehre eines Menschen, der sich nicht wehren kann, verletzt durch Klatsch, es ist ja im Grunde ein Klatschproblem." Heinrich Böll, *Eine deutschte Erinnerung. Gespräch mit Rene Wintzen*, Köln 1979, in: Bernd Balzer, a.a.O., 16쪽

했다: "나는 이 책을 *빌트* 신문과 *빌트 암 존탁*에 의해서 비방당하거나 조롱당한 모든 분들에게 바친다."[32]

2. 언론의 자유와 한계

독일 헌법 제 5조 제 1항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로, 글로, 그림으로 자유롭게 개진하고 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 대중언론, 재벌언론, 혹은 언론 소유주와 편집자의 견해가 같은 언론들이 무한한 언론 자유를 향유하여도 좋다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칼-헤르만 플라흐는 말하길 "정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 독일 언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다만 슈프링어 재벌 소유의 언론들은 (...) 이상스럽게도 모두 다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33]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벌 언론들의 경우 의견의 다양성은 제한받을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언론 소유 집중은 정치 참여 의지를 가졌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언론 소유주가 대중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은연중에 따르도록 만든다는 점이다.[34] 특히 이것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빌트* 신문에 의해서 실천되었다."[35] 거대한 언론의 일방적, 획일적, 편향적, 이데올로기적, 감정적 정보가

32) "Ich widme dieses Buch all denen, die je in 'Bild' und 'Bild' am Sonntag' verleumdet oder verhöhnt worden sind." Heinrich Böll, *Bild. Bonn. Boenisch*, in: Bernd Balzer, a.a.O., 17쪽

33) "Während der (...) Regierungskrise gab es in der deutschen Presse eine bunte Vielfalt von Meinungen, (...) nur die Organe des Hauses Springer kamen merkwürdigerweise (...) alle zur gleichen Meinung." Interview mit Karl-Herrmann Flach, in: Ludwig Helbig, *Politik im Aufriß 2*, Diesterweg 1975, 168쪽

34) 이와 관련하여 Georg Ruhrmann은 보도 내용의 독자 수용 과정을 9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도된 가치관에 따라 일반 신문 독자들은 언론의 특정한 의도와 입장을 갈파하고, 보도 내용을 자신의 입장으로 바꾸어 유포한다. 물론 독자들은 자신의 기억속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선입견, 입장과 의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거나 흥미있는 사회 현실로서 재구성하고 풀이한다. vgl. *Ereignis, Nachricht und Rezipient*, in: Hg. K. Merten/S. J. Schmidt/S. Weischenberg, *Die Wirklichkeit der Medien*, Opladen 1994, 245-248

35) "In besonders auffälliger Weise wird dies von der 'Bild'-Zeitung praktiziert." Gerd Ludwig,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Hollfeld/Ofr. 1986, 78쪽

일반 독자들의 판단과 선입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는 바로 알 수 있다. 그것은 보도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독자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 문제를 사회 전체에 만연된 의견으로 인식하여 독자가 그러한 의견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편승하게 된다.[36] 그래서 하인리히 뵐은 슈프링어 재벌 언론들의 보도 방식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격적 비난을 한다.

> 이 나라에서 폭탄과 총에 의한 폭력만을 폭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빌트* 표제기사는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 어떤 폭력? 천백만 애독자의 잠재적 공격성, 그들의 머리와 의식속에 조준되었으며, 이들은 중독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빌트* 신문 중독자들이다.[37]

또한 엑카르트 슈포, 독일 언론인 협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누구든 슈프링어 언론 재벌의 재판정의 수레바퀴로 빠져든 사람은 (...) 자신의 개인 명예는 물론 직업을 잃게 되고, *빌트* 독자들의 끊임없는 전횡을 겪으면서 살 수 밖에 없다."[38]

70년대 독일의 언론 재벌 악셀 슈프링어는 *빌트, 디 벨트, 빌트 암 존탁, 벨트 암 존탁*을 소유 운영하고 있었으며[39], 그 밖에 세 개의 언론 재벌이 있었다. 이런 언론 재벌이 독자들에게 선정적 보도를 제공

---

36) vgl. 이 정춘, *매스미디어 효과 이론*, 서울 (나남) 1997, 463-464쪽

37) "Es ist doch nachgerade unfaßbar, wenn man hierzulande unter Gewalt nur noch die Gewalt von Bomben und Maschinenpistolen versteht. Übt eine BILD-Schlagzeile keine Gewalt aus? Welche? Was wird da angerichtet in die Köpfen, im Bewußtsein, am Aggressionspotential dieser elf Millionen Süchtigen, die der politisch gefährlichsten aller Süchte, der BILD-Sucht unterworfen sind." Heinrich Böll,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in: *Neue politische und literarische Schriften*, Köln 1973, 262쪽

38) "Wer in die Mühle der Springer-Justiz geraten ist, (...) der muß damit rechnen, daß seine persönliche Ehre und seine berufliche Existenz verloren sind und daß er fortan nur unter ständigen Schikanen *Bild*-lesender Mitbürger leben kann." Günter Wallraff, *Neue Reportagen, Untersuchungen und Lehrbeispiele*, Hamburg 1974, 103쪽

39) 현재까지도 슈프링어 언론 재벌은 일간지 *빌트*, *벨트*, 일요신문 *빌트 암 존탁*와 *벨트 암 존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판매 부수(약 6백만부)를 기록하고 있다. vgl. Verkaufsauflage wichtiger Presseorgane (1997. 3. 31), in: Hg.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Tatsachen über Deutschland*, Frankfurt/M. 1977, 456쪽

하고 판매 부수를 높여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놓았을 때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도 좋은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파울 제떼는 특히 몇 사람의 자본가에 의해서 언론 소유가 집중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언론 자유가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언론의 자유는 2백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널리 퍼뜨리는 자유를 뜻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유가 있다. 재앙은 신문 소유주가 편집진에게 거의 자유를 주지 않거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강요하는데서 비롯한다.[40]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하는 군소 신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 부수가 많은 한 개의 신문이 거짓, 비방, 왜곡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 그것을 정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선정 대중 언론은 인기있고 센세이션한 표제를 달고, "독자들에게 쇼크를 주는 스토리(섹스, 범죄, 전쟁)로 말을 걸고, 종종 의식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서슴치 않는 직접 표현 방식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독서에서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독자층의 호기심 자극, 선정 보도 갈망과 말초 신경 자극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만족"[41]시킨다. 따라서 "언론 독점, 매스미디어, 가짜 여론 구조에서는 실제로 사회적 폭력 관계들이 재생산된다."[42]

독일 헌법 제 1조 제 1항에 "인간의 품위는 훼손될 수 없다.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라고 쓰여

---

40) vgl. Paul Sethe, Leserbrief im "Spiegel", 19. Jg., 1965. 5. 5, in: Gerd Ludwig, a.a.O., 78쪽

41) "(...) eine betont-populär-sensationelle Aufmachung (...) haben, den Leser durch schockierende Stories ansprechen wollen (sex, crime, war) und sich häufig bewußt einer sehr direkten Ausdrucksweise bedienen, die nicht selten die Vulgärsprache zu übertreffen sucht, um Neugier, Sensaitonshunger und Nervenkitzel einer bei der Lektüre kaum verharrenden Leserschaft permanent zu wecken und zu befriedigen." Stichwort *Boulevardpresse*, in: Hg. Kurt Koszyk/Karl H. Pruys, *dtv-Wörterbuch zur Publizistik*, München 1973, 61쪽

42) "In den Systemen der Pressemonopols, der Massenmedien und der Scheinöffentlichkeit reproduzieren sich die aktuellen gesellschaftlichen Gewaltverhältnisse." Oskar Negt/Alexander Kluge, *Öffentlichkeit und Erfahrung. Zur Organisationsanalyse von bürgerlicher und proletarisch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1972, 140쪽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슈프링어 재벌언론의 보도 방식과는 정면으로 대립하여 있었다. 그래서 뵐은 슈프링어 언론의 개인 명예 훼손과 인간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보도 방식을 막기 위해서 국가 권력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43] 하인리히 뵐의 언론 비판은 언론의 소유 집중과 선정 대중 저널리즘만을 집중 겨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작된 정보 문제와 언론 윤리를 강조했다.[44] 특히 선정 대중 언론이 실제로 호기심, 센세이션 즐김, 말초 신경 자극을 원하는 넓은 독자층을 만족시킨다면, 그 생산자들에게는 기록적 이윤이 보장되겠지만 그 이면, 즉 압축된 보도가 방어할 길이 없는 그 해당 대상자와 그 동조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쇼크는 가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언론에 의해서 여론에 노출된 당사자의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폐해는 간과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직 정부 대변인 콘라트 알러스가 한 때 "언론과의 투쟁"이라고 한 의미와 뵐의 언론 비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일종의 논쟁을 일삼는 언론도 있는데 (...) 이런 언론은 우리가 헌법 제5조에 명기한 표현 자유라고 (...)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45]

뵐의 선정 대중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은 그의 여러 작품들과 언론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센세이션 저널리즘은 언론 폭력을 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독자들의 폭력성을 낳는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 자유는 그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도의 중심에 어느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유포, 비방해서 사회적으로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 소유가 재벌에게로 집중됨으로써 소유주와 편집자의 견해가 일치하여 언론의 위력이 통제 불능으로 발휘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가 독자의 비판적 토론을 차단하고 편향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차단하는

43) vgl. Heinrich Böll, *Neue politische und literarische Schriften*, 260쪽

44) vgl. Hanno Beth, *Rufmord und Mord*, in: Hg. Hanno Beth, *Heinrich Böll. Eine Einführung in das Gesamtwerk in Einzelinterpretation*, Königstein/Ts. 1980, 72-74쪽

45) "Es ist eine Presse, die Nachrichten verfälscht und die eine Art von Polemik betreibt, die (...) mit dem, was mir im Artikel 5 unter Meinungsfreiheit (....) verstehen, kaum noch zu vereinbaren ist." Ludwig Helbig. a.a.O., 155쪽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독일 언론위원회가 1973년 11월 15일 언론의 자유와 제한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뵐의 비판과 같은 의견이다. 그 관련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독립, 비판의 자유와 독립을 의미한다. 발행인, 편집인, 기자들은 그들 작업을 함에 있어서 여론에 대한 책임과 언론의 명성을 위한 의무를 의식해야만 한다. 최고의 지식, 양심, 개인의 관심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지양해서 언론 임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언론 원칙들은 직업 윤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 1. 언론의 최고 사명은 진실과 여론의 진실된 교시에 있다. 8. 규명이 안된 고발, 특히 명예를 훼손하는 고발을 공개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품위와 역행한다. 10. 폭력과 난폭함에 대한 부적절하고 센세이션한 묘사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된다. 12. 언론은 (...) 계류중인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거나 선판결 입장을 내보이는 기사 작성은 피해야 한다. 혐의자를 법정 판결에 앞서서 죄인으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46]

자유 법치 국가에서 언론 자유의 보장은 언론의 기본 윤리, 즉 지성,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을 토대로 하여 진실과 거리가 먼 고의적인 정치 당파성이나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47] 빌리 브란트는 민주주의와 언어의 바람직한 상관관계

46) "Die i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verbürgte Pressefreiheit schließt die Unabhängigkeit und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und der Kritik ein. Verleger, Herausgeber und Journalisten müssen sich bei ihrer Arbeit der Verantwortung gegenüber der Öffentlichkeit und ihrer Verpflichtung für Ansehen der Presse bewußt sein. Sie nehmen ihre publizisitsche Aufgabe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unbeeinflußt von persönlichen Interessen und sachfremden Beweggründen, wahr. Diese publizistischen Grundsätze dienen der Wahrung der Berufsethik; (...) 1. Achtung vor der Wahrheit und wahrhaftigen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sind oberstes Gebot der Presse. 8. Es widerspricht journalistischem Anstand, unbegründete Beschuldigungen, insbesondere ehrverletzender Natur, zu veröffentlichen. 10. Auf eine unangemessene, sensationelle Darstellung von Gewalt und Brutalität soll verzichtet werden. 12. Die Presse vermeidet deshalb, vor Beginn und während der Dauer eines solchen Verfahrens in Darstellung und Überschrift, jede einseitige oder präjudizierende Stellungsnahme. Ein Verdächtiger darf vor einem gerichtlichen Urteil nicht als Schuldiger hingestellt werden." Presserat, DARMSTÄDTER ECHO "Pressekodex" 에서 발췌, 1973. 11.15 또는 Frankfurter Rundschau, Nr. 302, 1973. 12. 29 참조

47) 이 점은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유효하다. vgl. 미국의 '전문언론인협회의 윤리강령', in: P.슈메이커/ S. 리즈 (김원용 역),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나남) 1996, 170-171쪽

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언어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 국민과 권력 기관 사이의 심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심연은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메워진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이해이다."[48]

그런데 언어의 오용, 언론 윤리 부재의 언론 자유는 구조적으로 언어의 폭력성을 낳을 수 있다. 다음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실제 있었던 언어 폭력의 사례인데, 그 피해자는 하노버 공과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브뤽크너 교수와 동명이인 하인리히 뵐이다. 이 중 브뤽크너 교수가 당한 언어 폭력의 사례는 뵐로 하여금 카타리나 블룸을 집필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가 사회에서 "나병환자처럼"[49] 취급되는 상황이 집필 동기가 된 것이었다. 브뤽크너 교수는 바더-마인호프 그룹에게 은닉처를 제공했다가 1972년 1월 20일 정직당했고, 나중에 복직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매스컴으로 부터 호된 공격을 받았다. 그 이후 일반인들의 전화 및 익명의 서신을 통해서 언어 폭력의 체험을 겪으면서 극도로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 나라는 사람이 모든 조롱을 받아도 되는 희생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 내 주변에는 가짜 현실이 에워싸고 있었다. 언제, 어느 신문들이 나에 대한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밤낮으로 익명 전화가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위협 편지도 있었다. 거리에선 많은 사람들이 나로 부터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당황하고, 유죄자로 보이고, 비방받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물었다: 나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가? (...) 네가티브 언론에 의해서 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고,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태로 내몰려 있었다. 공적으로 비인간이 되어 버린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취하는 거리감은 커져 간다. 친구들과 심지어 같은 정치 그룹의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손상되어 간다. 그로

48) "Demokratie und Sprache stehen in einem direkten Zusammenhang (...) Es gehört zu meinem Verständnis von Demokratie, daß die Kluft zwischen Volk und Behörde - auch zwischen Bürger und Parlament - durch genaue Sprache überbrückt wird." Willy Brandt, *Braucht die Politik den Schriftsteller?*, in: Hg. Dieter Lattmann, *Einigkeit der Einzelgänger*. Dokumentation des ersten Schriftstellerkongresses des Verbandes deutscher Schriftsteller (VS), München 1971, 14쪽

49) Dieter Zilligen, *Interview Heinrich Böll*, in: Bücherjournal, NDR-Fernsehen, 1974. 10. 19, in: Gerd Ludwig, a.a.O., 10쪽

인해서 편견없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간다.[50]

바로 브뤽크너 교수가 언론 보도 이후 겪게 된 언어 폭력의 사례는 문학작가와 동명이인인 하인리히 뵐의 경우도 유사하다. 1972년 1월 28일 제 2 공영 TV "ZDF-매거진"에서 방송 진행자 게하르트 뢰벤탈이 좌익 지식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이 좌익 파시즘 동조자들, 뵐과 같은 사람들, 브뤽크너 부류와 모든 다른 좌익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불행을 가져다 주게 했던 나치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51] 이 방송이 나간 이후 뒤셀도르프 근교에 사는 작가와 동명이인인 뵐은 익명의 전화를 끊임없이 받았다. 예를 들면 "이 빨갱이 녀석아, 네가 원하는 만큼 공산주의 찬양을 떠들어 댈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또는 "돼지같은 놈. 넌 가장 위대한 선동자다."[52] 그 밖에 그의 아내가 받은 전화 폭력과 욕설, 익명의 편지들이 뵐에게 쇄도하였다. 이 노인은 그 이후 혼자 문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동명이인은 베스트펠리쉐 룬트샤우 취재기자에게 "난 결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와도 무관한 사람입니다"[53]라고 말했다. 한 때 동명이인 뵐은 자신의 성과 이름이 1972년 노벨문학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과 같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한 적이 있었다.[54]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사회화, 감정과 경험들, 지식, 정치와 경제등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즉 매스미디어는 "현실을 구성하는 기구

---

50) Hubert Höring, *Betroffen-belastet-diffamiert*, Leserbrief im "Spiegel", 28. Jg., 1974. 8. 19, 7쪽, 재인용 Hanno Beth, *Rufmord und Mord*, 71쪽

51) Rolf Düdder, *Löwenthals Polit-Schau raubt dem Rentner Böll den Schlaf*, in: Westfälische Rundschau, 1976. 2. 11 (참고: 이 신문에는 뢰벤탈 방송 날자가 1976. 1. 12로 쓰여 있음), in: Gerd Ludwig, a.a.O., 106-107쪽 그리고 vgl. Hg. Franz Grützbach, a.a.O., 25쪽,

52) "Du roter Hund, mach, daß du in die Zone kommst, da kannst du soviel rot reden wie du willst", oder "Du Schwein, Du bist der größte Volksverhetzer, den es gibt." Rolf Düdder, 같은 신문

53) "Ich bin eben kein wichtiger Mann, und mit Politik habe ich nichts zu tun." 같은 신문

54) 작가 하인리히 뵐 역시 뢰벤탈 방송이 나간 후 전화 폭력에 시달렸고, 사람들로부터 길에서 야비한 말을 들었고, 경찰로 부터는 그의 아이펠 시골 별장이 감시받았다. vgl. Peter Schütt, *Ich habe eine Hoffnung, eine hartnäckige Hoffnung. Anmerkungen zur politischen Publizistik Heinrich Bölls*, in: Hg. Hanno Beth, a.a.O., 177쪽

가 되었다."[55] 따라서 이런 매스미디어의 위력과 폭력앞에 노출된 한 개인은 대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무형 폭력성 앞에 하나의 대응 방법이 작가 뵐의 작품에서 카타리나가 다시 폭력으로 맞대응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사회적 정치적 집단 히스테리의 진단으로서 모리타트 (범죄 이야기)"[56]는 역설적이지만 폭력에 맞선 폭력적 대응 역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는 요구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57]

3. *짜이퉁*과 *존탁스짜이퉁*의 폭력성과 그 상승작용

뵐은 작품 서두의 모토에서 작품 속의 *짜이퉁*의 보도 자세가 실제 신문 *빌트*와의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해두고 있다.

> 이 이야기의 등장 인물과 줄거리는 허구로 지어졌다. 이야기 묘사에 있어서 저널리즘 관련 상황이 *빌트* 신문의 실제 보도 자세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면, 이 유사성은 의도적이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58]

이 모토는 허구와 현실의 피할 수 없는 연관 관계를 강조하는데 그

---

55) "Sie sind zu Instrumenten der Wirklichkeitskonstruktion geworden." Siegfried J. Schmidt, *Die Wirklichkeit des Beobachters*, in: Hg. K. Merten/S.J. Schmidt/S. Weischenberg, a.a.O., 14쪽

56) "Die Moritat als Diagnose einer sozialen und politischen Kolletiv-Hysterie", Klaus Jeziorkowski, a.a.O., 218쪽

57) 이와 관련해서 언어 폭력의 결과로서 파생된 물리적 폭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vgl. Gerd Ludwig, a.a.O., 65쪽

58) "Personen und Handlung dieser Erzählung sind frei erfunden. Sollten sich bei der Schilderung gewisser journalistischer Praktiken Ähnlichkeiten mit den Praktiken der *Bild*-Zeitung ergeben haben, so sind diese Ähnlichkeiten weder beabsichtigt noch zufällig, sondern unvermeidlich."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oder: Wie Gewalt entstehen und wohin sie führen kann*, München 1997 (32. Auflage), 5쪽, 이하 "KB"로 약칭

것은 바로 허구성의 현실, 즉 문학적으로 허구의 현실을 그리고 있으나 그 현실은 바로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 그 자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와 현실이 서로 중첩될 뿐만 아니라 허구속에 현실성이, 현실속에 허구성이 있을 수 있는 관계"[59]를 뜻한다.

이 작품에는 서술자가 두 가지 현실을 묘사한다. 하나는 카타리나와 그녀의 변호사 블로르나를 통해서 알아낸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과 검경찰이 만들어내는 조작 현실이다. 이 두 개의 현실은 완전히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관점이 취해지고 있다. 서술자의 보고는 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출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차 정보 제공원은 경찰의 심문 조서들, 변호사 후베르트 블로르나와 그의 학교 친구이자 현재 검사인 페터 하호"이다(KB, 7). 그 밖에 부차적인 정보 제공은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나 보고 그 자체에서 드러난다. 서술자는 객관적, 중립적, 전지적 입장에서 여러 정황과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여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리고 있다. 서술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함이 없이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실제 서술된 이야기로부터 빠져 나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보고한다[60].

서술자는 보고문체를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카타리나의 현재처한 현실을 묘사하기 시작한다.

>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사실들은 잔혹하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 27세의 한 젊은 여성이 어느 도시에서 오후 6시 45분에 어느 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나선다. 그로부터 나흘 후 (...) 일요일 저녁 거의 같은 시각에 (...) 수사관 발터 뫼딩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 놀라는 뫼딩에게 그녀가 같은 날 정오 12시 15분경에 그녀의 집에서 신문기자 베르너 퇴트게스를 총으로 쏘았다고 자진 신고한다. (...) 그러니 그녀를 체포하도록 요청하면서 사랑하는 루드비히가 있는

59) "(...) liegt der Schluß nahe, daß Phantasie und Realität einander nicht nur überlagern, sondern genauso gut eine Verbindung eingehen können, in der Phantasie real sein kann und Realität phantastisch." Hanno Beth, *Rufmord und Mord*, 70쪽

60) vgl. Viktor Böll, *Sicherheitsgeschädigt: Personal und Leser*, in: Text + Kritik, Ht. 33, 76쪽

감옥에 그녀도 있고 싶다고 했다. (KB, 9)

이 서술에서 육하원칙 가운데 이유, 즉 왜가 빠졌는데 바로 그 이유가 앞으로 전개될 서술자의 보고문의 핵심 사안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가 서술 중심인데, 그러한 서술 의도는 뒤로 숨겨진 채 왜를 뺀 나머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담담하게 작품 서두에서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어떻게 나흘만에 한 젊은 여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은 바로 작품 부제 『폭력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된다. 그래서 서술자는 독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피력한다. "왜 그토록 영리하고 거의 냉정하기 조차한 불룸과 같은 여자가 살인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겼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KB, 13). 바로 서술자의 이 물음이 작품의 중심 테마이며[61] 그 주제는 "통속 언론의 선정성과 정치 공세이다."[62]

서술 방법은 앞서 이야기 하기, 추론하기, 회상, 인용과 진술, 예감과 예시, 암시등이다. 이런 묘사 방법을 통해서 처음부터 카타리나가 조작현실과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이 나란히 병존하는 듯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는 바로 진실된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조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서술자는 끊임없이 이 현실의 이면과 표면을 들추어내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된 현실인가를 보여준다.

3.1. *짜이퉁*과 *콘탁스짜이퉁*에 의해 조작된 현실

*짜이퉁*의 기사 작성 구조는 역피라미드형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전문요약이 가장 핵심내용을 이룬다.[63] 따라서 일반 독자들은

61) vgl. Manfred Lange, *Ästhetik des Humanen. Das literarische Programm Heinrich Bölls*, in: Text + Kritik, 95쪽

62) "Ihr Thema sind Sensationsmache und Polithetze der Boulevardpresse." Heinz Hengst, *Zur Rolle des Katholizismus im Erzählwerk Bölls*, in: Text + Kritk, 113쪽

63) vgl. S.J. Schmidt/S. Weischenberg, *Mediengattungen, Berichterstattungsmuster,*

"전체 기사를 읽지 않더라도 요약된 첫 문장인 전문만 읽어도 기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독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즉각적으로 불러 일으켜 독자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64] 이 역피라미드형의 보도 방식은 먼저 전문요약, 그 다음 흥미있는 세부사실 (본문), 마지막으로 부가적 사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서 전문요약에 해당하는 표제 기사는 굵은 대문자 글씨로 쓰여졌고 카타리나의 사진이 크게 함께 실려있다: "도둑의 애인 카타리나 블룸은 남자 방문에 대한 진술 거부."(KB, 36).

세부 내용으로는 "만약 루드비히 괴텐의 애인 가정관리사 카타리나 블룸이 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도주시키지 않았다면 1년 반 동안 경찰이 추적해 온 강도이자 살인자인 괴텐을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블룸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모하여 사건에 개입되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KB, 36). 그리고 부가적 내용은 "뒷면 남자 방문 기사를 볼 것"(KB, 36)이다.

여기서 왜 카타리나가 언론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카타리나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던 괴텐의 도주와 은닉처를 도왔다는 것이 사회적, 법적으로 위법 행위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은 협조자, 즉 문제 사안의 핵심에서 보면 부차적이다. 즉 1차적인 중요 사안은 괴텐이 받고 있는 혐의인데, 우연히 그를 알게 되어 사랑한 카타리나가 탈영병 괴텐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로 *짜이퉁*은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괴텐에 관한 "공개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감추어지고 공공의 통제가 없이"[65] 언론의 추측, 왜곡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짜이퉁*은 선정 보도 대상으로 범죄와 섹스, 즉 "도둑의 애인"과 "남자방문"을 표제 기사로 내세워 독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짜이퉁*은 언론의 기본 수칙 가운데 하나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Darstellungsformen, in: Hg. K. Merten/S.J. Schmidt/S. Weischenberg, a.a.O., 234쪽

64) 이 정춘, 현대 사회와 매스미디어, 서울 (나남출판) 1998, 133쪽

65) "(...) bleiben wesentliche Teile des Ermittlungsverfahrens der Öffentlichkeit verborgen und somit ohne öffentliche Kontrolle." Volker Neuhau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in Bölls Romanen der sechziger und siebziger Jahre*, in: Text + Kritik, 50쪽

타인의 행위나 어떤 결과에 대하여 단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확실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실만으로 기사의 전체를 만들어야"[66]한다. 그러나 *짜이퉁*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 작성이 아니라 추측, 의견, 경찰의 일방적 견해를 수집, 가공하여 기사화한다.

*짜이퉁*은 계속해서 추측 보도, "블룸은 2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의 집은 범죄 모의 장소, 갱들의 만남장소, 무기 은닉 장소였는가?(KB, 37)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문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결국 독자들로 하여금 카타리나는 범죄 집단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답을 자연스레 얻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짜이퉁*의 보도는 대중 심리의 폭력성을 야기하는 심리적, 언어적 접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분을 살 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은 독자들의 분노로 표출될 수 있는 상승 작용을 겨냥하고 있다. 그 언론 보도 대상에 속한 사람들은 확실한 물증이나 확인없이도 쉽게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거나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된다. 게다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짜이퉁*은 보도 내용의 사실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카타리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다.

맨 먼저 카타리나의 고향 마을 성직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서 제의실에서 그녀의 애인들과 더불어 방탕한 축제를 벌였던"(KB, 35/36) 부도덕한 여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의 어머니가 제의실에서 미사용 포도주를 한 번 마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신부는 과장해서 말한 것이다. 여기서 언론은 일반인들이 성직자의 진술을 진실로서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또 "카톨릭 교회의 반성없는 반공산주의 전통"[67]과 "나치 시대때 카톨릭의 의심스러운 역할"[68]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짜이퉁*

66) 이정춘, 현대 사회와 매스미디어, 129쪽. 그러나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일간 신문에서 사실 보도와 의견을 분리해야 하는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gl. S.J. Schmidt/S. Weischenberg, a.a.O., 226쪽

67) "eine unreflektierte antisozialistische Tradition der katholischen Kirche", Heinz Hengst, *Zur Rolle des Katholizismus im Erzählwerk Bölls*, in: Text + Kritik, 113쪽

68) "Diese fragwürdige Rolle des Katholizismus während der NS-Zeit" Heinrich Böll, *Brief an einen jungen Katholiken*, in: Erzählungen, Hörspiele, Aufsätze, Köln 1961, 380쪽

은 카타리나 아버지가 위장된 공산주의자였다는 신부의 진술을 통해서 카타리나 역시 공산주의자이거나 그 동조자이며, 그녀가 괴텐 사건에 가담한 것은 공산주의 활동과 이념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은연중에 독자들의 인상에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은 카타리나의 고용인 블로르나씨의 진술이 왜곡되어 보도되어 있다. 블로르나 부부는 휴가지에서 *짜이퉁* 신문기자의 취재 방문을 받았다. 기자 퇴트게스는 블로르나에게 다짜고짜로 "카타리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가"(KB, 35)묻자 블로르나는 카타리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되묻는다: "난 변호사인데, 누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범죄요? 카타리나가 말이요?" (KB, 35) 그 기자를 통해서 카타리나가 은행 강도 괴텐을 도피시켰다는 이야기를 듣자 즉시 카타리나에게 가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눈치가 빠른 노련한 기자는 그에게 카타리나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재촉한다. 이에 당황한 블로르나는 "그녀는 아주 영리하고 냉정한 사람이다"(KB, 35)라고 말한다. 그런데 *짜이퉁* 보도에는 카타리나는 "얼음처럼 차갑고 타산적이다"와 카타리나는 "정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도되었다(KB, 36). 이것은 취재 대상자의 직접 진술과 비교해서 볼 때 *짜이퉁*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도시켜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기사 편집 과정에서 취재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재가공하고, 요약하고, 중요한 관점과 내용은 덧붙여서 강조하여 재구성한다.[69] 따라서 이러한 사실 왜곡이 실제 언론 보도 과정에서 늘 가능한 일이다.

이 취재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후 카타리나가 블로르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짜이퉁*이 보도한 바대로 그가 얘기했는가 확인했다. 그는 전혀 다르게 기사화된 자신의 의견과 상황을 설명했고 카타리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전 당신의 말을 믿어요. 믿구 말구요. 이제는 이 형편없는 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겠어요. 오늘 아침엔 중병이 든 제 어머니, 브레트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 휘젓고 다녔어요. (KB, 37)

69) vgl. Georg Ruhrmann, a.a.O., 244쪽

그 다음날 *짜이퉁* 보도는 섹스, 범죄, 공산주의를 한 묶음으로 하여 카타리나 범죄 스토리를 점층적으로 강화시켜 보도한다. 토요일 *짜이퉁*의 전문요약은 "살인자의 신부는 여전히 고집불통! 괴텐의 은닉처에 대해선 함구! 경찰 초비상!"(KB, 39)이라고 표제기사를 설정하여 개인 비방이 절정에 이르른다.

세부기사는 남자 방문란에서 자세히 보도되고 있는데, *짜이퉁*은 스스로 보도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코멘트도 덧붙이고 있다. "*짜이퉁*이 카타리나의 성격과 그녀의 불투명한 과거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진술들을 계속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KB, 4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짜이퉁* 기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병의 카타리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KB, 40/41)했으며,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듯 "그런 일이 오고야 말았으며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KB, 41)라고 보도한다. 실제 그녀의 어머니는 *짜이퉁*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된 딸의 행적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으로 "왜 일이 그렇게 끝나야만 했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겨야만 했는가?"(KB, 103)라고 말했다. 이런 사소한 왜곡 보도를 통해서 안타까움이 비난으로 바뀌고, 어머니로 부터 나온 이 비난은 독자에게 카타리나의 부도덕성을 확신시켜 준다. 신문기자 퇴트게스는 기자로서 "단순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를 전달시키기 위해서"(KB, 103) 카타리나 어머니의 진술을 조금 변경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카타리나는 극도로 흥분했다.

> 신문사 사람들은 살인자이자 명예를 해치는 자들 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죄없는 사람들의 명예, 명성,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하는 거예요. (KB, 106)

그러나 그녀의 의견과는 달리 *짜이퉁* 기자를 통해서 딸의 범죄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안정을 요하는 어머니에게 쇼크를 주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에서 카타리나는 어머니의 시신를 확인하고는 자리를 떠나고 나서 억누를 길 없는 눈물을 흘렸다.

또한 기자는 블룸의 전남편 빌헬름 브레트로를 만났는데 그는 기자

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보도였다.

> 이제야 (...) 나는 비로소 알겠습니다. 왜 그녀가 날 싫어해서 떠났는지 말입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말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의 소박한 행복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지요. (...) 이제야 비로소 왜 제가 그녀의 극단성과 반교회주의를 항상 두려워했었는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KB, 41)

브레트로는 언론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언론이 이용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는 부도덕성, 극단성, 반란과 범죄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카타리나의 결혼 생활 역시 그녀의 사회주의적 경향 때문에 파경에 이른 것으로 그녀의 전남편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다. 그는 "노동조합 또한 신뢰하지 않는 성실한 노동자"(KB, 41)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환상들은 종결되어야만 한다"(KB, 41)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짜이퉁*의 정치적 의도이며 일반 독자들에게 정치적 불안을 부추기는데 카타리나와 브레트로는 가장 적합한 대비적 인물들이다.

이어서 다음 증언은 정년 퇴직한 교장 히페르츠와 그의 아내였는데, 이 댁에서도 카타리나가 3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카타리나 사건에 대해서 "경악하기는 했으나 특별하게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KB, 42). 또 히페르츠씨는 덧붙여 말하기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인물이 우리 집으로 자신을 숨기고 일하러 왔다"(KB 42)라고 신문은 인용 보도를 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블로르나가 히페르츠와 전화 통화한 바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자에게 말했다고 맹세하였다.

> 카타리나가 철저한 사람이라면 그 경우는 그녀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적이며 영특하다는 점에서 그렇다.(KB, 42)

히페르츠의 진술은 카타리나에 대한 호감과 긍정적 평가였으나 언론은 오히려 카타리나가 공산주의 경향을 지녔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조작은 "라디칼" (radikal)이란 용어를 통해서 가능했다. 이 낱말은 언어 상황에 따라 극단적 경향, 즉

공산주의 경향을 지녔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카타리나는 위장 공산주의자라는 *짜이퉁*의 편집 의도대로 히페르츠의 진술을 왜곡 보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블로르나 부부의 사진이 실렸으며 그 관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때 붉은 트루데로 유명했던 이 부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따금 좌익으로 알려진 그녀의 남편은 무슨 역할을 한 것인가."(KB, 42/43) 언론의 이러한 보도자세는 민주주의적 공생이라는 허울아래 존재해 있는 일반인의 편견을 이용하고 있다. 그 편견은 지성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하고, 비판적 진보성을 좌익의 음모라고 간주하는 데서 비롯한다.[70] 그래서 카타리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녀에게 인간적 연민과 호의를 베푼 블로르나 부부도 언론의 집중 추적 보도 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들 지성인 부부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들 역시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하게 부각시킨다. "높은 보수를 받는 기업 법률고문 블로르나 박사는 그의 아내 트루데와 함께 호화별장 야외 수영장 앞에"(KB, 43)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와 범죄성은 상호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블로르나 부부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언론이 조작된 정치적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붉은 트루데는 분명 카타리나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 지침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독자들에게 암시를 준다.

다음 날 일요신문 *존탁스짜이퉁*은 카타리나의 개인 비방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 보다는 카타리나 범죄 스토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의 표제기사는 "카타리나 블룸의 다정한 애인 기업가의 별장에서 체포"(KB, 113)였다. 여전히 기사의 중심 인물은 카타리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도는 이삼쪽에 걸쳐 자세한 이야기와 카타리나와 관련된 여러 사진들이 실렸다. 그 보도 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타리나 블룸의 맨 처음 희생자는 바로 그녀 자신의 어머니라고 볼

70) vgl. Eberhard Scheiffele, *Kritische Sprachanalyse in Heinrich Bölls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in: Basis 9, 1979, 175쪽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카타리나의 활동에 쇼크를 받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 그녀는 살인자이자 도둑인 괴텐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파티에서 춤을 추었으며, 정작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정말 이 여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타산적인가?(KB, 113)

그리고는 카타리나의 한 때 고용주였던 시골 의사의 아내가 카타리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정말 매춘부다운 면이 있었습니다. 난 자라나는 내 아들들, 환자들 그리고 내 남편의 명성을 위해서 그녀를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KB, 113) 그러나 카타리나의 진술에서 보면, 카타리나가 1년간 의사 클루텐 집에서 보조관리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는 의사 클루텐이 종종 그녀에게 추근거렸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 했으며, 카타리나 또한 남자들이 추근대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vgl. KB, 23).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시골 의사의 아내는 자신의 질투심을 반영하여 오히려 카타리나를 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서 카타리나의 과거의 고용주 페너른 박사의 횡령죄에 그녀가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즉 "카타리나 B.는 그 악명높은 페너른 박사의 횡령죄에 관여되어 있었는가? (...)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그녀의 빠른 부의 축적과 높은 수입이다"(KB, 113). 이러한 언론의 의혹 보도는 카타리나가 페너른 박사의 횡령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으나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암시를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범죄성 부각만으로도 일반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사실로서 고착되어 버린다. 더구나 일련의 언론 보도가 카타리나의 부정직하고 나쁜 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다시 새로운 의혹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미 형성된 상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번에는 괴텐의 은닉처와 관련해서 그녀에게 친절을 베푼 슈트로이브레더를 범죄에 이용하는 뻔뻔함을 내보이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 보도 내용에서는 남자 방문이 아니라 카타리나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방문한 여자로 절묘하게 뒤바꾸고 있는 사실이다.

그녀가 남자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여자방문을 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별장을 알아내기 위해서 청하지도 않은 방문을 했다.

> 블룸의 자동차 여행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한 사람의 명예, 가족의 행복, 그의 정치적 경력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 이것은 블룸이 분명 좌익 그룹의 위임을 받고 S.의 경력을 파괴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KB, 114)

이렇게 언론은 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슈트로이브레더의 부도덕성을 감추는 대신 그 몫을 카타리나의 범죄성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으로서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조작된 현실로 둔갑한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 그녀는 가까운 조문객들에게 슈트로이브레더가 바로 그녀의 남자 방문객이었고, 그녀에게 별장 열쇠를 준 장본인이며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반지를 선물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부유하고, 정치, 경제, 학문 분야에서 돈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그와 같은 남자를 그녀가 거부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KB, 108)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서 다시 또 블로르나 부부와 그들의 집 사진이 실려있고 블로르나 부인이 카타리나에게 그녀가 사는 아파트의 설계 구조를 알려주어 괴텐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는 보도를 한다(vgl. KB, 115). 마지막으로 괴텐 도주 사건과 관련하여 심문을 받았던 여판매원 쇼이멜과 그녀의 친구 슈테름의 진술을 인용 보도했다. 블룸과 괴텐의 "서로 춤추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오래 전 부터 잘 아는 사이처럼 보였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재회였다."(KB,115) 이 보도는 전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살짝 변조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쇼이멜은 카타리나의 먼 친척이기도 한데 그녀는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괴텐을 자신의 남자 친구 대신 춤 파티에 초대해서 함께 볼터스하임 부인 댁으로 갔었고, 거기서 카타리나가 처음 그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 두 아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은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카타리나가 괴텐과 즉시 가까워지고 그날 밤 내내 춤을 추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웠지요. 마치 그들은 이미 오래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말이예요."(KB, 69) 이 말의 의미는 카타리나는 남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두는데 이번은 놀랍게도 괴텐에게 첫 눈에 반한 것이 의외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존탁스짜이퉁*은 카타리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조차 괴텐과의 사귐을 비밀에 부

치고 있다는 암시의 악의적 보도를 하였다.

또 언론 보도는 괴텐이 체포된 이후 „카타리나는 자신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가 진술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KB, 114)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독자로 하여금 당연히 믿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심리적으로 강화시킨 후 다시 "우리의 심문 방법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인간이 아닌 인간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야만 하는가?"(KB, 114)라고 독자에게 단호한 질문을 던진다.

*짜이퉁*과 *존탁스짜이퉁*에 의해 조작된 진술들은 카타리나를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인 신문 독자라 하더라도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의심없이 받아드리고 언론의 왜곡, 거짓, 비방 보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 특히 카타리나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던 카타리나의 전남편, 마을 신부, 시골의사 부인의 진술에서 보면 이들이 언론의 정보에 의해서 평소 자신들이 품고 있었던 편견이나 질투심이 확인되면서 적극적으로 언론의 입장과 의도를 자발적으로 강화시켜 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경찰 조직원 가운데서 수사관 뫼딩과 수습 여경관 레나테 퀀트다흐는 카타리나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뫼딩은 1차 심문이 끝나자 카타리나를 집으로 바래다 주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카타리나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수사관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카타리나를 염려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화기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내일 신문은 펼치지 마십시오"(KB, 34). 뫼딩은 이 신문이 바로 *짜이퉁*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내부인으로서 그는 경찰과 언론의 공조 협력관계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카타리나가 2차 심문이 끝난 다음 볼터스하임 부인을 기다리면서 신문 읽기에만 몰두한다. 젊은 여경관 퀀트다흐가 그녀를 감시하는데, 그녀는 카타리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럼에도 카타리나가 신문 읽기에만 몰두하자 다른 신문들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다른 신문은 카타리나 기사를 아주 짧게 다루거나 카타리나 블룸 대신에 카타리나 B.로 표기하였으며 그녀의 사진도 싣지 않았다. 15개 신문을 다 본 카타리나는 묻는다. "그런데 누가 이 신문을 읽을까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짜이퉁*을 구독하는데요."(KB,

61) 카타리나와 같은 사회 계층을 "*짜이퉁*이 이미 독점하고 있고 그럼으로서 독자들에게는 이 신문이 통제 불능으로 되어 버렸다."[71] 즉 여러 군소 신문들이 기사를 중립적, 객관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구독자가 아주 많은 독점 언론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조사 기관과 언론에 의해서 카타리나와 블로르나 부부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품위는 여지없이 손상당하고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카타리나에게 "살인동기"[72]로서 작용한다. 즉 언론에 의한 무형의 폭력은 기분좋게 춤 파티에 갔던 한 젊은 여자를 나흘 만에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결국 언론 보도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였다(vgl. KB, 131).

3. 2. 조작 현실을 가능케 한 계기들

언론의 사실 조작 내지는 가짜 현실 만들기에는 검경찰과의 공생관계에서 비롯하였다. 검경찰로 하여금 진실을 잘못 파악하게 한 계기와 단서들은 자동차 여행, 남자 방문, 값비싼 반지 소지, 아파트와 자동차 소유등이다. 이에 대한 혐의점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경찰 심문 조사와 가택 수사 압수 물품에서 나온다. 이 압수 물품에서는 1차적으로 수상쩍은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자동차 연비, 주행거리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맨 먼저 자세한 조사가 있었다. 지난 2년 사이 행선지와 목적이 불분명한 자동차 여행에 대한 조사는 바로 "불륨의 내밀한 영역"(KB, 50)을 들추어낸다는 의미였다. 일상적인 자동차 주행 이외에 어디로 차를 타고 갔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자 카타리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항상 비가 올 때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

71) "Eine *Pressevielfalt* gibt es nicht mehr; für Katharinas soziale Schicht hat die ZEITUNG längst das Monopol und ist damit für diese Leser unkontrollierbar geworden." Volker Neuhau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in Bölls Romanen der sechziger und siebziger Jahre*, in: Hg. Heinz Ludwig Arnold, Text + Kritik, Ht 33, 49쪽

72) "als Anstiftung zum Mord", Peter Schütt, *Ich habe eine Hoffnung, eine hartnäckige Hoffnung*, in: Hg. Hanno Beth, a.a.O., 177쪽

(...) 전 그냥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켜고 달렸는데 시골길을 비가 올 때 달렸어요. 가장 좋은 것은 나무가 많은 시골길이었으며 가끔은 네델란드나 벨기에로 가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고 나서 다시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곤 했어요.(KB, 49)

이러한 카타리나의 설명에 바이츠멘네는 회심의 미소를 짓으면서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남자 방문과 관련해서 경찰은 카타리나의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한다. 대다수 주민은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차겁게 보였다"(KB, 30/31)고 진술했다. 다만 이러한 진술 이외에 이웃 주민 두 사람이 카타리나에게는 남자 방문객이 있었다고 덧붙여 진술을 하였다. 두 사람은 미용사인 쉬밀 부인과 퇴직공무원 루비델이었는데, 남자 방문객에 대한 세부 진술에서는 달랐지만 분명히 카타리나는 남자 방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치하였다. 이러한 의심점에 대해서 경찰은 카타리나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자 수사반장 바이츠멘네는 2년 전부터 카타리나가 괴텐을 사귀어왔다고 단정한다. 수사반장의 이러한 단정에 카타리나는 몹시 당황해서 괴텐을 처음 안 것은 바로 볼터스하임 부인댁 댄스 파티에서 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게 받아들여졌다. 핵심은 그녀의 남자 방문객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이런 의심으로부터 그녀가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녀는 그에 관한 진술을 끝까지 거부한다. 그 이유는 먼저 남자 방문의 장본인은 슈트로이브레더인데, 그처럼 높은 신분층의 구애를 그녀가 거절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며, 둘째는 그가 준 별장 열쇠를 괴텐에게 주어서, 그가 현재 거기에 은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73]

나중에 문제가 된 남자 방문객은 슈트로이브레더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별장에 괴텐이 은닉한 사실을 알고는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블로르나에게 직접 고백한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껏 심문과정이나 언론에 드러나

73) vgl. Hanno Beth, *Rufmord und Mord.*, 82/83쪽

> 지 않은 일일쎄. 사실은 내가 카타리나에게 반년 전에 콜호르스트하임에 있는 별장 열쇠를 주었네. (...) 자네는 센티멘탈하다고 보겠지만 난 그녀가 나를 찾아와 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별장 열쇠를 준 것일쎄. 그녀를 도울 것이고 그녀에게 협조할 것이라는 내 말을 믿어주게. 게다가 기꺼이 내가 바로 남자 방문객이었다고 가서 고백하겠네. (KB, 92-93)

덧붙여서 그는 그의 동업자 뤼딩에게도, 검사 하흐에게도, 경찰에도 밝힐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카타리나가 그 열쇠를 괴텐에게 주었고, 그는 지난 이틀동안 그 곳에 숨어있다고 말했다(vgl. KB, 93). 이러한 그의 고백은 사실이며, 게다가 카타리나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녀에게 값비싼 반지까지 주었었다.

> 이 날부터 그는 그녀를 뒤쫓아왔고, 다시 오고, 꽃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몇 번은 그가 그녀의 집안으로 들어오는 일에도 성공하였으며 그 기회에 그는 그녀에게 그 반지를 들이밀었다. (KB, 108)

바로 이 반지가 경찰의 카타리나 집 압수 수택때 발견한 수상쩍은 물건이었다. 이것이 카타리나가 괴텐의 은행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한 때 그녀의 고용주였던 페너른 박사의 횡령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단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수사반장 바이츠멘네는 값비싼 루비 반지의 출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종용한다. 그 이유는 "살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도 사건 범인 조사에서 이 반지는 사소한 것이 아니며 또한 빗속에 수천 킬로를 자동차로 달리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안도 아니기"(KB, 52) 때문이었다. 수사반장은 이 값비싼 반지는 괴텐이 보냈거나 혹은 어느 남자 방문객이 보낸 것, 혹은 그 둘 다 아니라면 그녀가 "여자 방문객"(KB, 52)으로서 자동차로 수천 킬로 빗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한 댓가로 얻은 반지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카타리나는 보석의 출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다시 남자 방문이 화제에 오르자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극도로 훼손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단히 수치심을 느낀다. 그녀는 수사반장의 단정적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난 정말 볼터스하임 부인 집에서 진심으로 루드비히 괴텐하고만 춤을 추었는데, 그는 내 삶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한 남자였으며 그의 성은 목요일 아침 경찰 조사에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어요. 전 그에게 대단한 애정을 느꼈고 그 역시 저에게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지요. (KB, 54)

이에 대해서 수사반장은 친구들로 부터는 "수녀"(KB, 98)라고 불리우는 그녀가 괴텐을 보자마자 첫 눈에 반했고, 아주 빨리 "그와 성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KB, 53) 어떻게 된 일이냐고 비꼬듯이 말한다. 그런데 카타리나의 괴텐에 대한 사랑은 거래에 의한 성적 파트너로, 혹은 사랑을 소유로 받아들이는 유형과는 전혀 다르다. 에리히 프롬은 상품 거래처럼 변해버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 쌍방에 유익한 교환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 그 또는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본다. (...) 두 사람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을 발견했다는 감정이 들 때만, 즉 서로간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한다.[74]

이와는 달리 카타리나는 괴텐이 유익한 가치가 전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뵐은 "사랑이란 참 저주스럽도록 기묘한 일이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범죄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KB, 141)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카타리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잘 누린다고 하는 점에서 현대인의 전형성을 내보이고 있다.

> 교환 가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모든 태도를 규정한다.

74) "Unsere ganze Kultur beruht auf der Kauflust, auf der Vorstellung eins für beide Seiten günstigen Austausches (...) er oder sie sieht sich die Mitmenschen in ganz ähnlicher Weise an (...) Zwei Personen verlieben sich also einander, wenn sie das Gefühl haben, das geeigneteste auf dem Markt verfügbare Objekt gefunden zu hab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renzen ihres eigenen Tauschwertes." Erich Fromm, *Die Kunst des Liebes*, Frankfurt/M. 1979, 17-18쪽

> 우리의 능력과 장점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품 가치로서 시장으로 가져간다.[75]

카타리나에게 있어서 교환가치는 자신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대가로 젊은 나이에 단독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블로르나 부인이 일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시외곽에 설계한 주택 단지에 있었으며 아파트 비용은 현금으로 일부 지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이었다. 부지런함 덕택으로 그녀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빨리 갚아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중고차도 샀다. 그녀가 "여러 군데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일하는데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이 너무 힘겨웠기"(KB, 26)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카타리나의 진술에서 보듯이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모우고 자산을 일군 것이다. 카타리나의 부지런함, 절약, 아파트와 자동차 소유, 계획성, 정확성등과 관련하여 하인리히 헤르린은 에리히 프롬의 현대 사회 시민의 자기 목적으로서 절약, 수집, 소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막스 베버와 맑스주의적 의미에서 "삶의 목적으로서 소유 지향", "교환 가치의 우위"에 입각해서 해석을 시도해봤다. 그의 결론은 카타리나를 자본주의 시민 사회의 한 전형으로 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76]. 왜냐하면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괴텐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조건없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블로르나 부부는 그녀의 도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며, 히페르츠 부부 역시 자신들을 휴가 때 카타리나가 역으로 바래다 준 것은 돈과 상관없는 그녀의 친절과 호의였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카타리나는 현대

---

75) "Der Tauschwert bestimmt - bewußt oder unbewußt - unser gesamtes Verhalten. Alles, was wir an Fähigkeiten und Vorzügen besitzen, bringen wir auf den Markt als Ware, für unsere Bescheidenheit Gegenstand zu erhalten." Dieter Duhm, *Angst im Kapitalismus. Zweiter Versuch der gesellschaftlichen Begründung zwischen menschlicher Angst in der kapitalistischen Warengesellschaft*, Lampertheim 1972, 39쪽

76) vgl. Heinrich Herlyn, *Jenseits des Leistungsprinzip*, in: Text + Kritik, 59-72쪽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 특징을 수단으로 하여 "모범적인 인간성"[77]을 보여주고 있다. 뵐은 이러한 점을 작품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아직 많은 사랑의 경험이 없는 카타리나 블룸은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완전히 비정치적인 인물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경제적 비약을 했다. 확실히 그녀는 경제 기적을 몸소 체험한 셈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와 주택 소유, 절약등. (KB, 141)

요약한다면, 남자 방문과 값비싼 반지 소지, 목적이 확실치 않은 자동차 여행은 곧바로 괴텐의 범행에 카타리나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경찰에게 단서를 제공했고, 그녀의 자산 형성과 수입은 그녀의 전남편의 말대로 "어떻게 한 하층민의 여자가 그런 부를 얻게 되었을까. 그녀가 성실하게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KB, 41)라고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그 밖의 단서는 괴텐의 전화이다. 괴텐이 은신처에서 카타리나에게 전화를 건 것은 경찰의 도청망에 바로 걸렸다. 이와 같은 단서들은 검경찰과 언론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카타리나의 범죄성을 강조하고, 이 범죄는 바로 카타리나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비롯하는 것으로 왜곡 보도된다.

3. 3. 실제 현실

카타리나의 실제 현실은 다음과 같다. 그녀는 27세로서 전문 자격증을 얻어서 가정관리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녀는 어렵게 유년과 청소년 시기를 보냈으며, 20세때 노동자인 브레트로와 결혼을 했으나 결혼 6개월 후 그를 떠난다. 그 이유는 그녀가 특히 남자들의 일방적 애정 표현이나 행동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데 남편이 바로 그런 타입이어서 그와 이혼을 했다. 그녀는 일방적 애정과 상호간의 애정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다정함은 쌍방간의 애정 교환인데 비해서 추근댐은 일방적 행위 Zärtlichkiet sei eben eine beiderseitige und Zudringlichkeit eine einseitige Handlung"(KB,30)라는 것이다. 남편과 헤어진 후 친척이자 정신적 조언자인 볼터스하임 부인의 도움으로 그녀는 전문직업

77) "vorbildliche Menschlichkeit", 같은 책, 63쪽

인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은 블로르나 박사 부부집에서 가정관리사로 일하고 있다. 동시에 파트 타임으로 히페르츠 부부 집에서도 같은 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축제 때 볼터스하임 댁 댄스 파티에서 군대 탈영병 루드비히 괴텐이라는 청년을 우연히 만난다. 처음 만났으나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느꼈고 함께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그는 그녀의 도움으로 아파트 지하 통로를 통해서 도주한다. 그녀를 연모하던 슈트로이브레더가 그녀에게 별장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그녀는 괴텐에게 은닉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준다.

그 동안 괴텐은 은행 절도와 살인 용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으나, 그가 도주하게 되자 그녀의 집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 의해서 카타리나는 가택 수사와 심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경찰의 심문 조사 내용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지고 언론은 이 사건을 섹스, 범죄, 공산주의로 묶어서 선정적 보도를 한다. 그 이후 카타리나는 대다수 익명의 전화와 편지를 통한 언어 폭력에 시달린다. 그 주요 내용은 그녀를 마치 고급 창녀라고 간주하거나, 공산주의자로 몰아버리는 극단적 표현의 언어들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신문기자가 카타리나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심지어 수술 후 절대 안정을 요하는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 쇼크를 주어서 사망케 하는 일도 벌어진다. 카타리나로서는 이 무형의 사회 압력과 언어 폭력앞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 방법도 없다. 그래서 괴텐을 알게 된 나흘 후 신문기자 퇴트게스를 특별 인터뷰하자고 그녀의 집으로 오게 해서 총으로 그를 쏘아버린다.

이제 그녀의 변호를 맡게 된 "블로르나의 가장 큰 근심은 법정에서 그녀가 조금도 후회의 빛을 내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일요일 아침에 퇴트게스에게 복수하려는 결심을 했다"(KB,125)고 진술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적어도 그녀가 살인 계획을 완종일 궁리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인상은 피해야만 했다. "블로르나는 그녀에게 그를 포함해서 누구나 이따금 살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살인 생각과 살인 계획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KB, 126)

블로르나는 그녀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비해서 카타리나는 "오히려 사랑하는 루드비히와 같은 조건하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 하였다."(KB, 126) 물론 카타리나는 감옥 주방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처럼 착실하게 일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그래서 블로르나는 그녀가 감옥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염려한다. "예상하건대 계획성있는 두뇌로 짜낸 정확함은 어느 곳에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관청에서도 환영하는 바가 아니다."(KB, 126)

검사 하흐가 괴텐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은행 강도죄와 살인죄로는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군대 탈영과 두 연대의 봉급과 예비비를 횡령한 것, 대차대조표 위조, 무기 약탈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블로르나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그의 약혼녀로 인정될 것인지는 상급 법원에서 결정된다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예상되는 형량과 석방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8년에서 10년 후면 괴텐은 34세이고, 카타리나는 35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석방 후 괴텐과의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감옥 생활을 즐겨 감수하려고 한다.

3. 4. 카타리나와 그녀의 주변 인물들에 가해진 언어 폭력성

카타리나, 블로르나 부부와 볼터스하임 부인이 검경찰, 언론 및 일반 대중으로 부터 겪은 심리적 억압과 언어 폭력의 체험들은 비인간적 사회의 한 단면이다. 먼저 카타리나의 경우를 중심으로 검경찰, 언론, 대중의 언어 폭력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카타리나가 괴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가택 침입을 받게 되었을 때 수사반장 바이츠멘네는 노골적으로 성적 관계를 부각시키는 질문을 하므로써 카타리나의 자존심을 극단적으로 훼손한다. 괴텐이 도주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수사반장은 그녀에게 "그가 너와 섹스를 했어? Hat er dich denn gefickt?"(KB, 19)라고 질문을 던진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검사 하흐는 친구들 사이에 "호색한 Sexklemmer" (KB, 19)이라 불리웠는데, 수사반장이 아니었으면 그가 직접 그런 질문을 했거나 혹은 그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수사반장의 질문에 카나리나는 침착하게 "아니오, 난 그렇게 명명하지 않

아요."(KB, 19)라고 대답하는데 여기에는 섹스와 사랑을 구분하는 그녀의 도덕적 자세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그녀는 남자들의 추근댐이나 일방적 애정 표현을 혐오하며, 그런 그녀의 성적 엄격성은 경찰 조사 기록 확인에서도 드러나는데 추근거림 Zudringlichkeit과 다정함 Zärtlichkeit을 반드시 구분해서 쓰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의 가택수사와 취조때까지는 카타리나가 냉정하게 모든 모욕과 마음의 상처를 잘 견딘다. 문제는 *짜이퉁*의 추측, 왜곡 보도가 그녀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켰고 그녀는 언론 보도 행태를 한마디로 대단히 비열한 짓이라고 받아들인다. 특히 공산주의자의 섹스 범죄 스토리로 만드는 *짜이퉁*의 거짓, 왜곡, 편파 보도에 카타리나는 경악하고 국가의 도움을 청하려는 듯 "국가가 이 더러운 오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줄 일을 할 수는 없는가"(KB, 60)고 묻는다. 물론 없다. 도움이나 보호는 커녕 오히려 언론과 "국가 조사 기관 사이의 공생 협력과 친화 관계"[78]를 확인할 뿐이다.

한편 카타리나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익명의 전화와 성적 유혹을 부추기는 우편물에 시달린다. 한 익명의 아파트 이웃 주민은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왜 그대는 내가 제시한 상호간의 다정한 사랑을 이용하지 않는가?"(KB, 78)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짜이퉁* 보도의 정치적 메시지도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공산주의자 Kommunistensau", "붉은 들쥐 roter Wühlmaus", "스탈린이 해내지 못한 일은 너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KB, 7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설과 인신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대중에게 심어진 카타리나의 허상과는 달리 그녀와 공산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녀의 의식속에서 관심을 차지해 본 적이 없다. 어릴 때 마을 신부의 조롱을 받았을 때도 붉은 카타리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 놀림을 받았을 때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자 정말 그녀는 붉은 카타리나가 된 것이었다. 당시 마을 신부로부터 "우리 붉은 카타리나 unser rötliches Kathrinchen"(KB, 136)라고 놀림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사

78) "(...) ja es erweist sich sogar eine gewisse Zusammenarbeit und Affinität zwischen der ZEITUNG, der ermittelnden Polizei und Staatsanwaltschaft", Manfred Lange, a.a.O., 96쪽

회주의가 가장 나쁜 것만은 아니다" (KB, 121)라는 의견을 어느 사석에서 피력한 것이 그는 공산주의자라고 그 신부가 인식하여 버린데서 비롯하였다.

그 밖에 카타리나는 섹스와 정치적 공격뿐만 아니라 두 통의 종교적 경고를 담은 편지도 받았다. "불쌍하고 길 잃은 아이야, 너는 다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신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KB, 78)

결국 카타리나는 언론과 대중 사이의 비방 상승 효과로 인해서 고급창녀, 공산주의자, 반교회주의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언론과 대중 사이의 비방 상승 효과는 카타리나로 하여금 맨 처음 자신의 일상 물건들을 집에서 부수게끔 하는 심리적 폭력 반응을 일으킨다. 그녀가 쉐리병, 위스키병, 포도주병을 벽에다 내던지는 행위는 바로 외부의 공격에 저항하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웃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정신적 모욕, 비방에 대해서 달리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는데서 비롯하는 그녀의 참을 수 없는 반응들인 것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블로르나 부부, 볼터스하임 부인 역시 심리적 폭력 충동을 자제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르른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목요일 신문 보도를 필두로"(KB, 79) 금요일 보도는 결정적으로 이웃과 독자들의 관심을 증폭시켜서 그 이후 익명의 전화와 우편물이 쇄도하였으며 토요일 *짜이퉁* 보도와 일요신문 *존탁스짜이퉁* 보도가 이어진다. 이에 이르자 카타리나는 점점 더 폭력의 매카니즘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그녀가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그녀를 에워싼 주변 환경은 그녀를 적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어머니가 심리적 충격에 사망하자 이제 그녀로서는 더 잃어버릴 것도 없는 절망적 심리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에 대한 반응이 곧 퇴스게스 권총 살해로 연결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롯되었다.[79] 그녀는 인터뷰를 빌미로 퇴트게스를 그녀의 집으로 오게 하자 그 신문기자는 카타리나가 매력적인 여성이고, 집에서 인터뷰하자는 약속을 성적 접근을 원한다는 의미로

79) vgl. "ihr Bruch der Rechtsordnung (...) erfolgte, um ihre geistig-moralische Integrität, ihre Ehre wiederherzustellen", Hanno Beth, *Rufmord und Mord*, 84쪽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기자로서는 성적 재미도 얻고 기사거리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서 기쁘게 카타리나의 집으로 온 것이다. 문 앞에 들어서자 마자 그는 카타리나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자 블룸양, 우리 둘이서 이제 뭘 할까요? (...) 뭘 그렇게 혼이 나간 사람처럼 날 쳐다보십니까, 나의 사랑스런 카타리나. 내가 제안 하나 하죠. 우리 지금 한번 붐젠(섹스)할까요? (KB, 135)

카타리나는 이 말에 다음과 같이 마음 속으로 응수한다: "붐젠 (꽝 소리나는 것), 내 입장에서 더 좋지. 그래서 난 권총을 꺼내들고 즉시 그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 두 번, 세 번, 네 번. 정확히 몇 발이었는지 모르겠다." (KB, 135) 여기서 붐젠(bumsen)이란 어휘는 바로 저속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섹스와 범죄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낱말이다. 말하자면 붐젠을 퇴트게스는 속된 일상어의 의미로 사용하였고, 카타리나는 굉음이 나다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분명히 뵐은 이런 언어 유희에서 언어와 폭력의 상관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80]

카타리나는 범행을 저지른 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시내를 배회한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후회나 죄책감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카타리나는 비인간적 영역에 속하는 언어 폭력에 대항해서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녀는 "말을 통해서 명예를 잃었고 말을 통해서 살인자가 되었다."[81] 여기에서 폭력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카타리나와 같은 폭력적 대응은 바로 합법적 대응 방법이 결여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82]

다음은 블로르나 부부가 겪게 된 언어 폭력의 피해들이다. 이들 부부가 카타리나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카타리나

80) "Offenbar wollte Böll hier den Zusammenhang von Wort und Gewalt im Wortspiel zur Unmittelbarkeit verdichten." Rainer Nägele, *Heinrich Böll. Einführung in das Werk und die Forschung*, Frankfurt/M. 1976, 162쪽

81) "Durch Worte verliert Katharina Blum ihre Ehre, durch Worte wird sie zur Mörderin." Christine Gabriele Hoffmann, *Hrinrich Böll*, Hamburg 1977, 145쪽

82) vgl. Oskar Negt, *Rechtsordnung, Öffentlichkeit und Gewalt*, in: Hg. Heinz Grossmann/Oskar Negt, Die Aufersteheung *der Gewalt. Springblockade und politische Reaktio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M. 1972, 140쪽

가 직업을 성실하게 이행한 덕이었다. 카타리나는 남다른 덕목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실과 자존심 TREUE und STOLZ" (KB, 142)이었다. 이런 미덕을 제대로 인정한 사람이 블로르나 부부였다. 특히 이들은 카타리나가 가사관리인으로 일을 한 후부터 두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점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블로르나 부부는 카타리나 쪽 사람들로 분류되어 언론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된 것이었다. *짜이퉁* 보도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들 부부 역시 대중으로부터 인간적 모역을 당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휴가지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릴 때 택시 기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들도 신문에 났어요. 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당신은 변호사이자 그 매춘부를 고용하신 분이죠." (KB, 39/40) 이렇게 언론 보도는 일반 독자들의 사고와 감정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블로르나 부부는 좌익 지식인이자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힌다. 한번은 블로르나가 카타리나 고향 마을 신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곳에서 다소 블로르나를 도와준 후 헤어질 때 어느 여 퇴직교사의 말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당신 부인은 진짜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KB, 121) 블로르나 부인 트루데는 맨 처음 언론 보도가 나가자 마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을 분명하게 갖는다.

>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들은 카타리나를 끝장내고 말겠죠. 경찰이 아니면 *짜이퉁*이 그럴 것이고, *짜이퉁*이 흥미를 잃으면 그 다음은 대중들이 그럭하겠죠. (KB, 40)

블로르나는 *존탁스짜이퉁* 일요 보도에서 카타리나의 어머니의 조기 사망은 그녀의 딸 때문에 비롯하였고, 카타리나는 슈트로이브레더의 별장 열쇠를 도둑질했다고 까지 몰아세우는 기사 내용을 알게 된다. 그는 소리지르고, 부엌에서 빈 병을 찾아내어 부수고, 차고로 달려 나가다가 아내의 제지를 받았다. 대단히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있는 블로르나가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언

론 보도는 심리적 억압과 폭력을 야기한다. 게다가 그의 불리한 상황은 교묘하게 감추어졌는데 이것은 그의 동업자 뤼딩이 언론에 직접 개입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S.는 완전히 빼고 B.는 완전히 집어넣게. Sofort S. ganz raus, aber B. ganz rein."(KB, 98) 물론 여기서 S.는 슈트로이브레더를 뜻하는 이니셜이고 B.는 블로르나를 뜻했다. 그 슈트로이브레더가 직접 블로르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블로르나의 도움을 청하던 시기에 그의 별장에서 괴텐이 체포되었다. 그 이후 경찰, 검찰,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모든 것을 카타리나의 범죄로 돌린다. 이런 행태들은 블로르나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그 동안 저명인사로서 위세당당한 그의 위선을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 뿐이었다. 한편 블로르나의 아내는 뤼딩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냥 욕설을 내뱉았다: "이 돼지같은 녀석, 비열한 인간 Sie Schwein, Sie elendes Ferkel."(KB, 119). 트루데는 자신의 이름을 댈 겨를도 없이 욕설을 해댔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뤼딩은 누가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를 안다. 여기서 폭력의 매카니즘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며 그 반응이 왜 다시 폭력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되는지 블로르나 부부의 경우에서 또 한번 입증되고 있다.

한번은 공격성과 폭력성이 공개적으로 블로르나에 의해서 드러난다. 블로르나 부부가 어느 화가의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슈트로이브데더를 만났다. 블로르나는 그와 악수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가 반가운 기색으로 블로르나에게 와서 덥석 손을 잡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그렇게 엄숙한 얼굴을 하지 말게. 우리는 자네들을 몰락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걸쎄. 다만 자네 스스로 그렇게 하는데야 할 수 없지만 말일쎄."(KB, 129) 이 순간 블로르나의 주먹이 그를 후려쳤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는데 맞은 후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자네를 용서하지, 모든 것 용서하지, 자네의 감정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말일쎄"(KB, 129)라고 말했다. 이 말은 더욱 블로르나를 분격케 했으나 공개석상에서 더구자 *짜이퉁* 사진기자도 있는 자리여서 자제하였다. 이 주먹다짐 사진이 신문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신문을 나쁘다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사진 기사 제목으로 "우익

정치가가 좌익 변호사의 폭력적 공격을 받다"(KB, 130).

블로르나 부부는 열린 성격의 소유자이고 넉넉한 생활에 폭넓은 견문과 여행을 했고, 전문 직업도 가진 사람이었으나 폭력적 대응뿐만 아니라 블로르나의 경우에는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일상에 무관심해지고 황폐해져 간다. 이들 부부는 이제 재정적 어려움도 겪게 되어서 자신의 소유 빌라를 팔려고 내놓았다. 한편 블로르나 부인도 근무하던 건축 설계 사무소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아파트 단지의 설계를 누설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건축 시공회사는 카타리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카타리나 블룸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블로르나 부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느 가구회사의 "실내장식 상담자"(KB, 132) 일을 지원하지만 그 가구 회사는 그녀를 알아보고는 일자리를 거절한다: "부인,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계층은 바로 당신이 말썽을 일으켜 사이가 나빠진 바로 그 사회 계층입니다."(KB, 132)

한편 볼터스하임 부인은 카타리나에게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괴텐 사건 이후 그녀는 카타리나를 에워싸고 벌어지는 무형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심리적 괴롭힘 앞에서 그녀를 방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 부인은 카타리나로부터 위험한 내면적 파괴 신호를 감지한다. 그것은 카타리나가 대단히 애착을 가졌던 자신의 집조차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볼터스하임 부인은 카타리나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 내용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러 들어 "한 젊은이의 삶이 파괴되는 것"(KB, 62)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강력하게 경찰에 항의한다. 그녀는 카타리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 "그 결혼은 카타리나가 불행한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도피"(KB, 64)였고,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늘 염려와 배려를 해 온 처지여서 그녀의 심리적 위험 상황을 제대로 갈파한다. 그래서 볼터스하임은 개인의 인권은 정당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일방적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그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반면 검사 코르텐은 "언론 자유는 경솔하게 훼손되어서는 안되며"(KB, 65) 아무도 잘못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고 강력하게 언론의 입장을 옹호한다. 즉 괴텐 사건은 세인의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수사 상황이 바로 언론에 전해지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지켰다는 뜻이었다. 만약 조사 결과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 훼손으로 고발"(KB, 60)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검경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장대로 카타리나의 행위는 공산주의자들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조사를 계속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볼터스하임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단서를 캐낸다. 그녀는 어느 여공의 혼전 아이로 태어났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지금 동독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볼터스하임 역시 환경적으로 좌익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도 노동자였는데 그는 옛 KPD 당원이었다가 1932년 소비에트로 귀화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정보를 수사반장 바이츠멘네가 언론에 흘린다. 그 이후 그녀 역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카타리나 일을 늘 함께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거칠게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면 파티 손님들인 내외신 기자들, 은행원, 고위직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블로르나에게 자신의 내면적 공격성을 억누르려고 많이 애쓴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4. 나오는 말

*짜이퉁*은 맨 처음에 신문기자 퇴트게스의 죽음과 사진기자 쉐너의 죽음을 마치 "직업의 희생양"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 두 살인 사건이 카타리나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낸다. 물론 사진기자 쉐너는 카타리나가 괴텐 사건과 연루되어 맨 처음 경찰에 연행되어 갈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의 사진을 사방으로 찍어갔던 기자였다(vgl. KB, 21). 그런데 퇴트게스는 일요일 총에 맞아 살해되었고, 쉐너는 그 다음 화요일 숲에서 살해되어 다음 날 수요일에 발견되었다. 퇴스게스를 살해할 때의 권총과 쉐너 살해 때 사용된

권총이 다르다는 증거, 목격자인 택시 운전사의 증언, 카타리나 블룸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살인 동기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이 두가지 범행이 카타리나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라는 암시 기사를 계속 내보낸다. 이 두 살인 사건은 저널리스트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짜이퉁*은 비이성적 흥분, 호외 보도, 엄청나게 과장된 부고를 띠우기도 한다. (vgl. KB, 13)

> 언론의 과잉 관심의 사태가 여기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짜이퉁*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저널리스트 살해는 뭔가 특히 나쁜 것, 끔찍한 것, 거의 장엄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종교 의식의 살인처럼 다루어졌고 '직업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게끔 하였다. 물론 쉐너 역시 카타리나 블룸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초지일관 고수하면서 (...) 또 퇴트게스의 경우 만약 신문기자가 아니였다면 그가 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KB, 13)

그런데 물증과 증거에 의해서 카타리나가 쉐너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미 유포된 보도 내용은 정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두 기자의 장례식이 대비적으로 치뤄진 것을 통해서 카타리나가 쉐너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퇴트게스는 이미 오래 전에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치루고) 장례가 치뤄졌다. 쉐너의 죽음과 장례식은 이상할 정도로 그런 많은 비용을 쓰지도 않았고 관심도 끌지 않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쉐너는 '직업의 희생자'가 아니라 질투심의 희생자였기 때문일까? (KB, 14)

이 예에서 보듯이 언론의 자기 보호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의 피해로 부터 발생한 카타리나의 폭력적 대응을 언론은 다시 자기 방어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언론에 의해 야기된 "명예 훼손에서 기자에게 가해진 살인이 해명되어야 하는데, 후자는 그 전자가 없이 이해될 수가 없으며 양자는 (...) 폭력의 변증법적"[83] 상승 작용을 한다.

---

83) "(...) aus dem in publizistischer Dimension vorgetragenen Rufmord erklärt sich der ihm folgende Mord, einer wäre ohne den anderen unbegreiflich, (...) und

*짜이퉁*의 정치적 의도는 공산주의는 특정한 권력층이나 지배층으로 몰리는 힘을 분산시키고, 소유 집중을 막고 부의 분배를 노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념으로 부각시킨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자본에 대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짜이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언론의 숨은 의도는 카타리나의 전남편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의 진술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사회주의란 파괴적 영향과 범죄적 경향을 지녔으며, 노동조합은 사회에 해로운 기구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카타리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바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과 연루되어 있고, 이 범죄 집단은 다름 아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도식이다. 카타리나의 아버지는 마을 신부의 진술대로 공산주의자, 볼터스하임 부인은 그녀의 어머니가 구동독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 역시 공산주의자, 블로르나 부인 트루데는 학창시절 활동때문에 그녀 역시 공산주의자, 그녀의 남편 블로르나는 좌익 지식인으로 역시 공산주의자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카타리나와 그녀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영원히 공산주의자 친화 그룹으로 내몰거나 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는지 그 의도가 뚜렷하다."[84] 그것은 철저하게 독자의 감정적,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부추기고 북돋우면서 언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섹스, 정치, 종교, 공산주의, 횡령, 의심쩍은 부의 축적과 같은 센세이션한 보도는 판매 부수 신장과 구독층 확보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한편으로 독자들은 어느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 익명으로 언어 폭력을 가함으로서 가해자의 기쁨과 만족을 최대한 만끽한다. 자신들은 흠없고 깨끗한 존재들인데 비해서 카타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카타리나의 어원은 "순수하다"는 뜻임)는 죄많은 사람이라고 단죄한다.

결국 *짜이퉁*과 *존탁스짜이퉁*은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경찰의 추측성 견해를 사실인 것처럼 표제 기사로 쓰고, 카타

---

zusammen erst bilden sie jene ebenso bekannte wie geleugnete dialektische Einheit der Gewalt." Hanno Beth, a.a.O., 88쪽

84) "Damit wird klar, weshalb Katharina und ihr Bekanntkreis permanent in die Nähe von Kommunisten gerückt oder selbst als Kommunisten bezeichnet werden." Gerd Ludwig, a.a.O., 44쪽

리나 주변 사람들의 일방적 의견을 당사자간의 문제로 받아들이게끔 완전히 의견과 사실을 혼돈하여 보도한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신문이 보도한 사건 사이의 괴리와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85] 이것이 바로 카타리나의 폭력 저항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외부로 부터, 위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결함이 훼손당한 다음에 그 고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만큼의 폭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86]는 점이다. 그러나 한 번 유포된 거짓, 왜곡, 비방, 과장 보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교정하거나 수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하게 확인된 *짜이퉁*의 거짓 보도는 결국 수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독자들에게 심어 준 인상과 작용은 걷우워들일 수가 없다.

여기서 폭력의 매카니즘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복 순환되고 있다. 그것은 "영향을 끼치는 것,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받은 영향의 실제 적용"[87]이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변형된 형태로 모든 폭력 관계에 내재하여 있다. 또한 폭력의 구조를 형성하여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불공평한 기회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구조적 폭력이 개인적 폭력보다 덜 고통을 수반한다"[88]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한 개인과 관련된 보도에서 늘 전횡을 휘두르고 폭군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한번 유포시킨 보도 내용은 원칙적으로 쏟아진 물처럼 되담을 수 없는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언론의 속성은 21세기 정보 사회에서 윤리 부재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정보와 개인 인권과의 상관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

85) 같은 관점을 Klaus Krippendorff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순들이 (...) 물리적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Diskrepanzen (...) vermögen physische Gewalt hervorzurufen." Klaus Krippendorff, *Der verschwundene Bote*, in: Hg. K. Merten/S.J. Schmidt/S. Weischenberg, 99쪽

86) "(...) nach der erfahrenen Verletzung ihrer physischen und psychischen Integrität 'von oben' nun selbst verletzende Gewalt in Anspruch nehmen müssen, um jene Integrität zurückzugewinnen." Klaus-Michael Bogdal, *Heinrich von Kleist, Michael Kohlhaas*, München 1981, 8쪽

87) "etwas, das beeinflußt, etwas, das beeinflußt wird, und eine praktische Methode der Einflußnahme." Johan Galtung, *Gewalt, Frieden und Friedensforschung*, in: Hg. Dieter Senghaas,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M. 1971, 57쪽

88) "(...) daß strukturelle Gewalt weniger Leiden bringt als personale Gewalt." ebd., 66쪽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즉 무방비 상태로 개인 정보 노출과 유출이 된다면, 그 대상자의 명예와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윤리적,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합법적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카타리나 블룸과 같은 물리적 폭력 반응 또는 그와 유사한 파괴적 반응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München* 1997

Hrsg. Arnold, Heinz Ludwig: *Heinrich Böll. Text + Kritik*, Heft 33, München 1982

Balzer, Bernd: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Frankfurt/M. 1990

Hrsg. Balzer, Bernd: *Heinrich Böll.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1-4, Köln 1989

Hrsg. Balzer, Bernd: *Heinrich Böll. Werke.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1-3, Köln 1978

Hrsg. Balzer, Bernd: *Heinrich Böll. Werke. Interviews* 1, Köln 1978

Hrsg. Balzer, Bernd: *Heinrich Böll, 1917-1985, zum 75. Geburtstag*, Frankfurt/M. 1992

Hrsg. Bellmann, Werner, *Das Werk Heinrich Bölls*, Opladen 1995

Hrsg. Beth, Hanno: *Heinrich Böll. Eine Einführung in das Gesamtwerk in Einzelinterpretation*, Königstein/Ts. 1980

Bienek, Horst: *Werkstattgespräche mit Schriftstellern*, München 1962

Bogdal, Klaus-Michael: *Heinrich von Kleist, Michael Kohlhaas*, München 1981

Böll, Heinrich: *Neue politische und literarische Schrifttten*, Köln 1973

Böll, Heinrich: *Frankfurter Vorlesungen*, München 1968

Dumm, Dieter: *Angst im Kapitalismus. Zweiter Versuch der gesellschaftlichen Begründung zwischen menschlicher Angst in der kapitalistischen Warengesellschaft*, Lampertheim 1972

Fromm, Erich: *Die Kunst des Liebes*, Frankfurt/M. 1979

Hrsg. Grützbach, Frank: *Heinrich Böll: Freies Geleit für Ulrike Meinhof, Ein Artikel und seine Folgen*, Köln 1972

Harbeck, Ulrich: *Abenteuer Deutschland. Von der Teilung zur Einheit*, Bergisch Gladbach 1990

Helbig, Lugwig: *Politik im Aufriß 2*, Dieterweg 1975

Hoffmann, Christine Gabriele: *Heinrich Böll*, Hamburg 1977

Jeziorkowski, Klaus, *Heinrich Böll*, in: Hrgs. Gunter E. Grimm und Frank Rainer Max, *Deutsche Dichter*, Bd. 8, Stuttgart 1990

Hrsg. Koszyk, Kurt/Pruys, Karl H.: *dtv-Wörterbuch zur Publizistik*, München 1973 (3. Auflage)

Hrsg. Lattmann, Dieter: *Einigkeit der Einzelgänger*. Dokumentation des ersten Schriftstellerkongresses des Verbandes deutscher Schriftsteller, München 1971

Hrsg. Lenging, Werner: *Der Schriftsteller Heinrich Böll. Ein biographisch-bibliographischer Abriß*, München 1972

Linder, Christian: *Drei Tage im März*, Köln 1975

Ludwig, Gerd: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Königs Erläuterungen und Materialien, Hollfeld/Ofr. 1986

Hrsg. Merten, Klaus / Schmidt, Siegfried J. / Weischenberg, Siegfried: *Die Wirklichkeit der Medien*, Opladen 1994

Nägele, Rainer: *Heinrich Böll. Einführung in das Werk und die Forschung*, Frankfurt / M. 1976

Negt, Oskar/Kluge, Alexander: *Öffentlichkeit und Erfahrung. Zur Organisationsanalyse von bürgerlicher und proletarischer Öffentlichkeit*, Frankfurt/M. 1972

Negt, Oskar/Grossmann, Heinz: *Die Auferstehung der Gewalt. Springblockade und politische Reaktio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M. 1972

Hrsg. Press-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Tatsachen über Deutschland, Frankfurt/M. 1977

Scheiffele, Eberhard: *Kritische Sprachanalyse in Heinrich Bölls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in: Basis 9 (1979)

Schiller, Friedrich: Der Verbrecher aus verlorener Ehre, Eine wahre Geschichte, in: Sämtliche Werke, Bd. III, München 1975

Hrsg. Senghaas, Dieter: *Kritische Friedensforschung*, Frankfurt/M. 1971

Wallraff, Günter: *Neue Reportagen. Untersuchungen und Lehrbeispiele*, Hamburg 1974

P. 슈메이커/ S. 리즈 (김원용 역), *매스미디어와 사회학*, 서울(나남) 1996

이정춘, *매스미디어와 효과 이론*, 서울(나남) 1997

이정춘, *현대 사회와 매스미디어*, 서울(나남) 1998

Zusammenfassung

Kim, Hi-Youl (Cheju National Uni)

Die Gewalttätigkeit der Presse und die Ehre der Einzelperson -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Heinrich Bölls

Heinrich Böll (1917-1985) bestimmt die Aufgabe der Literatur als Suche nach einer bewohnbaren Sprache in einem bewohnbaren Land und versucht dadurch ein menschenwürdiges Leben in einer zunehmend inhumanen Gesellschaft zu ermöglichen. In seinen Frankfurter Vorlesungen sagt Böll, daß er sich für zeitgenössische Probleme interessiert. Obwohl er als einzelner schreibe, habe er nie einzeln empfunden, sondern gebundenen, gebunden an Zeit und Zeitgenossenschaft, daran gebunden, aber nicht unterworfen Diese vorliegende Arbeit wird in vier Kapitel gegliedert.

1. Der Hintergrund der Erzählung Bölls: Zu Beginn der 70er Jahre sieht Böll einen neuen Rassismus und einen nackten Faschismus in der von großen Teilen der Presse geführten Hysterisierung gegen die *Baader-Meinhof-Gruppe*. Es begann mit einer Schlagzeile von *Bild* am 23. 12. 1971: "Baader-Meinhof-Bande mordet weiter." Für die Richtigkeit dieser Behauptung der *Bild* lagen keinerlei Beweise vor. Heinrich Böll schrieb daraufhin den Artikel "Will Ulrike Gnade oder freies Geleit?" Der Artikel erschien am 10. Januar 1972 im *Spiegel*. Mit seinem Spiegelartikel wollte Böll die irrsinnig hysterische Atmosphäre entspannen, und das Hetzklima abbauen, aber es mißlang ihm völlig. Statt Hysterie zu vermindern, entfachte er eine dauernde Auseinandersetzung.

Böll beschäftigte sich lange mit Verleumdung und Zerstörung der menschlichen Würde, die durch die Massenmedien hervorgerufen wurde. Nach dieser Beschäftigung und seiner eigenen Auseinandersetzung mit der Presse und der Gesellschaft wurde die Erzählung 「Kathrina Blum」 veröffentlicht. Daher meinten manche Literaturkritiker, daß diese Erzählung eine Rache des Autors sei, oder daß Böll die Terroristen verteidigen wolle. Böll betont aber im *Nachwort* der Erzählung, es gebe in dieser Erzählung keinen einzigen Terroristen, auch keine Terroristin.

2. Die Pressefreiheit und deren Begrenztheit: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 der Pressefreiheit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Sie hat aber da ihre Grenzen, wo der politische Gegner diffamiert wird, wo die Würde des Menschen stark verletzt wird und er dadurch die Ehre verliert. Die publizistische Gewalt der Massenmedien wird aber in zwei Fällen zur realen, gegenüber einem pensionierten Herrn namens Heinrich Böll, der mit dem berühmten Nobelpreisträger nur den Namen gemeinsam hat, und Professor Brückner, der von seinem Amtspflichten suspendiert wird, weil er Angehörigen der Baader-Meinhof-Gruppen Unterschlupf gewährt haben soll.

3. Die Gewalttätigkeit der ZEITUNG und der SONNTAGSZEITUNG und deren Eskalation: Durch die Berichterstattung von ZEITUNG und SONNTAGS-ZEITUNG entsteht eine Scheinrealität. Die Namen dieser Zeitungen assoziieren in der Leserschaft *Bild* und *Bild am Sonntag* des Axel Springer Pressekonzerns. Diese Assoziation bzw. Ähnlichkeit ist weder beabsichtigt noch zufällig, sondern unvermeidlich, schreibt Böll im Motto seiner Erzählung. Deren Hauptfigur Katharina wird eines Tages zum Mittelpunkt der Sensationsmache und Polithetze der Boulevardzeitung, weil sie einem des Bankraubs und Mordes Verdächtigen bei seiner Flucht geholfen hat. Durch Verleumdung, Verdrehung und Verfälschung der Presse lernt sie die inhumanen Praktiken von Staatsanwaltschaft, Polizeibehörde und der ZEITUNG kennen. Von Anfang an wurde der Fall Katharinas in einem Zusammenhang von Sexualität, Verbrechertum und Kommunismus berichtet. Dafür interviewt die ZEITUNG den Bekanntkreis Kathrinas, um die kommerzielle und politische Absicht der ZEITUNG zu verstärken. Der Pfarrer von Gemmelsbroich, der ehemalige Mann Katharinas Wilhelm Brettloh, das Ehepaar Blorna, Katharinas Mutter, das Ehepaar Hiepertz und die Frau des Arztes, der Katharinas ehemaliger Arbeitgeber ist, sind Interviewpartner der ZEITUNG. Der Pfarrer, Wilhelm Brettloh und die Frau des Arztes unterstützen die Absicht der ZEITUNG sehr aktiv. Deren Zitate und Aussagen bürgen für scheinbare Objektivität und Wahrheitsgehalt. Im Gegenteil dazu werden die Zitate und Aussagen der anderen völlig verdreht, entstellt oder total verfälscht.

Nach den Berichterstattungen erhält Katharina anonyme Anrufe und Briefe voller sexueller Belästigungen. Sowohl die politischen Beschimpfungen, nämlich von *Kommunistensau* bis zur *roten Wühlmaus*, als auch die religiöse Warnung erreichen sie. Auch das zu Katharina freundliche Ehepaar Blorna, bei dem Kathrina arbeitet, und Frau Woltersheim, die sich seit der Kindheit herzlich um Katharina kümmert, werden in den Berichterstattungen als

Kommunisten bezeichnet. Diese, die die verbale Gewalt der Presse und der Nachbarschaft erlebt haben, sind selber schrittweise psychologisch gegenterrorisiert. Am Ende erschießt Katharina den Reporter der ZEITUNG nach dem gewaltsam herbeigeführten Tod ihrer Mutter und dem Verlust ihrer Ehre. Die verbale Gewalt, die mit einer brutalisierten, antikommunistischen, auf Sexualität hinweisende Sprache erzeugt wird, verursacht die physische Gewalt Katharinas.

Die ZEITUNG und die SONNTAGSZEITUNG verletzen andauernd das oberste Gebot der Nachrichtenübermittlung: Die Trennung von Tatsachen und Meinungen. Sie vermischen Fakten mit Meinungen und sprechen von scheinbaren, verfälschten Fakten. Der Zwiespalt zwischen tatsächlichem und berichtetem Geschehen vergrößert sich so sehr, daß Gegengewalt provoziert wird, weil es keine legale Möglichkeit zur Wiederherstellung der Wahrheit gibt.

4. Schlußwort: In der Art und Weise, wie die Presse darüber schreibt, ist Sozialismus identisch mit den Begriffen Amoralität, Radikalität, Verschwörung und Verbrechen. Damit hat die ZEITUNG ihr Ziel erreicht: Sie richtet die durch die Berichterstattung herbeigeführten Aggressionen der Leserschaft auf das von ihr geschaffene Feindbild. Solche Diffamierungen, Lügen, Sensationalisierung und Eskalation sind für die Presse die Garantie, ihre marktwirtschaftliche Position durch hohe Auflageziffern zu stärken und so die geschilderten politischen Intentionen zu verwirklichen. Gegen diese Presse, die aus wirtschaftlichen Überlegungen und um der Verwirklichung politischer Ziele willen publizistische Gewalt ausübt und ein Individuum vernichtet, richtet Katharina die Sanktion der Gegengewalt..

In dieser Hinsicht stellt die Erzählung Bölls uns die Frage, wie das Menschenrecht und das Privatleben in der gegenwärtigen und auch in der zukünftigen Gesellschaft, wo persönliche Daten ohne öffentliche, moralische Kontrolle leicht und schnell verbreitet werden, geschützt werden können. Eine pessimistische Anwort darauf könnte Katharinas Fall sein, wenn wir keine passenden Sanktionen für den Schutz des Privatlebens und Kontrolle der schnellen, unkontrollierbaren Informationsverbreitung moralisch, juristisch, weltkooperativ durchsetzen.